

태백산국립공원 백천마을 인문자원조사

태백산국립공원 자락 산촌마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백천마을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TAEBAEKSAN NATIONAL PARK OFFICE

- 차 례 -

I 마을 개관	7
1. 마을이 속해 있는 행정개요	7
1) 봉화군	7
2) 석포면	9
2. 마을의 형성과 자연환경	10
1) 마을 이름의 유래	10
2) 마을의 형성과 역사	10
3) 마을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들	13
① 연화광산 개발	13
② 열목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14
③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반발	20
④ 현불사 창건	21
⑤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22
4) 마을의 자연문화자원	23
① 소나무 - 산림청 지정 보호수	23
② 당집	25
③ 옷물	25
④ 디딜방아	26
⑤ 마을경관	27
5) 마을 주변의 자연·문화 환경	30
① 태백산	30
② 백천계곡	32
③ 청옥산 자연휴양림	34
④ 평천 드르네굴	35
⑤ 승부역	35
6) 마을 주변의 지명 유래	35

II 주민 현황과 생활문화환경	38
1. 주민 현황	38
1) 주민 현황	38
2) 주민들이 백천마을로 들어온 시기와 이유	39
3) 마을조직	43
2. 생활문화환경	44
1) 생활환경	44
① 전기, 상하수도	44
② 마을 안길	45
③ 생활권	47
④ 교통	48
⑤ 시장	49
2) 문화환경	51
① 학교	51
② 기타	54
III 마을주민의 삶	55
1. 예전 백천마을 주민들의 생업	55
2. 지금 백천마을 주민들의 생업	57
3. 전통지식	61
1) 한봉	61
2) 엿물술	67
4. 민속신앙	69
1) 공동체신앙 (산신제)	69
2) 가정신앙	71

5. 음식생활	71
6. 주생활	72
1) 옛집의 기억	72
① 이석천의 옛집	72
② 김사준의 옛집	73
2) 지금 살고 있는 집	74
① 강창희 집	75
② 이석천 집	77
③ 김찬영 집	78
④ 김경란 집	79
⑤ 김사준 집	80
⑥ 무궁 스님이 사는 집	81
IV. 마을과 태백산, 태백산국립공원	83
1. 태백산국립공원	83
2. 국립공원 명품마을	85
참고문헌과 자료	91
백천마을주민 구술채록카드	93

- 그림 차례 -

그림1. 봉화군 행정구역지도	8
그림2. 석포면 지도	10
그림3. 열목어 보호활동 관련 신문 기사 1	19
그림4. 열목어 보호활동 관련 신문 기사 2	19
그림5. 백천마을과 장성5일장, 춘양장 위치	50
그림6. 부쇠봉 아래 골짜기	55
그림7. 백천마을안 건축물(집)의 위치 (보라색 원형 모양)	74

- 표 차례 -

표1. 열목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	14
표2.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현황	15
표3. 백천마을에서 부쇠봉으로 오르는 길의 산림청 지정 보호수 ‘소나무’ 현황	24
표4. 1960년대 이후 백천마을의 가구수 변화 추청	38
표5. 백천마을에 거주하는 인구 수	38
표6. 사람들이 백천마을에 거주한(했던) 시기	39
표7. 백천마을 주민들의 생년과 고향, 백천에 들어온 시기	39
표8. 백천마을에 있는 집들의 현황	75

- 구술채록카드 차례 -

1. 김사준	95
2. 김옥자	100
3. 강창희	102
4. 이석천	104
5. 김찬영	110
6. 정호 스님	113
7. 유창일	116
8. 무궁 스님	118
9. 김경란	119

I 마을 개관

1. 마을이 속해 있는 행정개요

1) 봉화군¹⁾

봉화군은 동쪽은 울진군, 서쪽은 영주시, 남쪽은 안동시·영양군, 북쪽은 강원도 영월군·삼척시·태백시와 접하고 있다. 동경 128°38'~129°12', 북위 36°44'~37°06'에 위치한다. 면적은 1,201.48km²이고, 인구는 3만 3808명(2015년 현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1개 읍, 9개 면, 156개 행정리(72개 법정리)가 있다.

봉화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조사가 미미하고 문헌자료가 희소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는 이 지역이 내륙 벽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오랫동안 독립행정구역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은 원래 고구려의 고사마현(古斯馬縣)이었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신라에 편입되어 757년(경덕왕 16)의 지방제도 개편 때 옥마현(玉馬縣)으로 개칭되어 선곡현(善谷縣: 지금의 안동시 예안면)과 함께 내령군(奈靈郡: 지금의 영주시)의 영현(領縣)이 되어 삭주(朔州: 지금의 춘천시)에 소속되었다는 것이다.

고려 초의 점진적인 지방제도 개편 하에서 봉화현으로 개명되었고, 1018년(현종 9)안동부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 말까지 계속 속현으로 있다가 1390년(공양왕 2)에 감무(監務)가 설치되어 비로소 중앙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별호(別號)는 봉성(鳳城)이었다.

이때 안동부에 소속되어 있던 물야(勿也: 지금의 물야면)·매토(買吐) 두 부곡(部曲)을 관할영역으로 편입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이곳을 본관으로 하는 금의(琴儀) 및 정도전(鄭道傳)과 관련되어 주목받기도 하였다.

1413년(태종 13) 지방제도 개편 때 현감이 임명되었고, 1457년(세조 3)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가 역향(逆鄉)으로 지목되어 폐지되자 문수산 동쪽 지역을 할양받아 현세(縣勢)가 확대되었다. 당시 이곳의 토지는 척박했고, 풍속은 절검하며 양잠에 힘썼다고 한다.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호구 수는 243호, 인구는 1,160명이었다.

한편, 고려 후기 이래 이곳을 본관으로 하는 금씨(琴氏)·정씨(鄭氏)가 중앙정계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조선 중기부터는 안동지역의 사족(士族)들이 이곳으로 이동해 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곡(酉谷)으로 이주해온 권벌(權機)이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 서울을 거쳐 강원도에 진격한 왜군이 경상도로 남하해 오자 유종개(柳宗介) 및 윤흠신(尹欽信)·윤흠도(尹欽道) 형제를 중심으로 의병 수백 명이 현 동쪽 소천(小川) 지역에서 적을 방어하다가 열세에 몰려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실록의 보관을 위해 사고(史庫)가 정비되자, 1606년(선조 39) 이곳 태백산에도 사고·선원각(璿源閣)·실록각(實錄閣)이 남화사지(覽華寺址) 부근에 설치되었다.

1956년 내성면이 봉화면으로 개칭되었다. 1963년 춘양면 덕구리와 천평리가 강원도 영월군으로 편입되었으며, 소천면에 석포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상운면 두월리·내림리가 영주군 이산면으로, 법전면 소로리가 춘양면으로 편입되는 등 행정관할구역의 조정이 있었고, 1979년 5월 1일 봉화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그림1. 봉화군 행정구역지도2)

1983년 명호면 신라리가 상운면에 편입되었으며, 소천면 석포리·대현리·승부리 및 울진군 서면의 전곡리 일부를 통합해 석포면을 설치하였다. 1991년 1월 1일 봉성면의 원둔리가 봉양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4년 7월에는 춘양면 우구치1·2리를 우구치리로, 소천면 고선1·2리를 고선2리로, 고선3리를 고선1리로, 명호면 북곡1·2리를 북곡리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2000년 1월에는 석포면 대현1·2리를 대현1리로, 대현3리를 대현2리로, 재산면 현동2·4리를 현동2리로, 남면 1·2리를 남면리로, 갈산1·2리를 갈산1리로, 갈산3·4리를 갈산2리로, 상리1·2리를 상리리로, 상운면

2) 봉화군 홈페이지

문촌1·2리를 문촌리로 신라1·2리를 신라리로 통합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봉화읍 포저리를 내성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후 2004년 3월 군 청사를 봉화읍 내성리 285번지에서 537번지로 옮겼다.

2) 석포면³⁾

군의 북동단에 위치한 면. 면적 150.16km², 인구 2,221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석포리이다. 본래 안동군 소천면 지역이었으나 1906년 봉화군에 편입되었다. 소천면 소재지와 거리가 멀어 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자 1963년에 석포1·2리와 대현리·승부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석포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83년 석포리·대현리·승부리와 울진군 서면 전곡리 일부를 병합해 석포면으로 되었다.

봉화군에서 가장 험한 산악지대로, 북에는 묘봉(猫峰, 1,168m)·면산(綿山, 1,245m)·삼방산(三芳山, 1,175m)·연화봉(蓮花峰, 1,053m)·태백산(太白山, 1,568m) 등의 고봉이 병풍과 같이 솟아 강원도와의 도계를 이루며, 남서에는 청옥산·비룡산, 남동에는 백병산(白柄山, 1,036m)·오미산(梧味山, 1,071m) 등의 고산이 있다.

황지에서 발원하여 장성읍을 지나온 낙동강의 본류가 면의 서부에 약간 치우쳐 감입곡류를 형성하면서 남류하고, 그 유역에 평지와 취락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태백산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는 지류와 면의 동부산지에서 발원하여 서류하는 2개의 지류가 면의 동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으나 평야는 거의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총면적 중 경지면적은 4.20km²로 2.8%, 임야면적은 141.54로 94.3%, 기타 2.9%로 이루어져 있다. 경지 중 논이 0.07km²로 1.7%, 밭이 4.13km²로 98.3%를 차지하여 밭농사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면의 대부분이 산지인 관계로 미곡 생산량은 군내 최하위이며, 메밀·감자·배추·양배추·시금치·무 등의 작물과 고랭지채소 재배가 성하다. 석포리의 샘터마을에는 재래종 벌이 많아 토종꿀이 많이 생산된다.

대현리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아연광산이, 석포리에는 아연을 제련하는 제련소가 있어 주민의 고용이 증대되었으나 지금은 폐광되었다. 영동선과 부산~강릉간 국도가 면을 남북으로 통과하고, 육송정~원덕간의 군도가 북동부를 지나며 국도에 연결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대현리 연화봉 중턱에 석회동굴인 평천동굴이 있고, 백천계곡에는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서식지다. 대현리에 청옥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석포리 반야계곡이 유명하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2. 석포면 지도 (왼쪽 위 보라색 동그라미 부분이 대현리)

2. 마을의 형성과 자연환경

1) 마을 이름의 유래

마을 이름은 잣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여 백천(柏川)이라 했다고 한다.⁴⁾

봉화군청에서 운영하는 봉화문화관광 사이트에는 ‘단종이 그의 삼촌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 월성대로 쫓겨 와서 사약을 받고 죽었으니 그 내용은 단종실록에 실려 있는 바이다. 어린나이에 죽은 단종의 혼령은 최치원의 인도를 받아 백천 근처인 태백산 만경대에 올라 한양을 향해 삼촌 세조에게 성군이 되어달라고 빌었다. 단군, 문수보살, 단종 등 세 사람은 정답게 대현 백천에 있는 넓은 바위에 자주 앉아서 소요하였는데 그 곳에서 서식하는 열목어는 모양이 특이하고 맛이 좋았다. 그 열목어에 상처가 나면 잣나무 진 이외에는 고칠 길이 없다하여 열목어가 많이 사는 이곳을 백천(栢川)이라 하였다.’고 되어 있다.⁵⁾

2) 마을의 형성과 역사

백천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구전 등은 없다. 김사준은 ‘전해오는 말로는 알 수 있다. 내가 대현으로 왔을 때(1970년대)도 묵은 묘들이 많았다.’고 한다. 마을 형성과 역사에 대한 구전이 없는 것에 대해 이석천은 ‘화전민이 살던 곳이라, 살다가 다른 곳으로 나가니 유래 등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4) 봉화 여행길잡이(67쪽), 봉화군

5) 봉화문화관광

사이트(<http://www.bonghwa.go.kr/open.content/tour/cultural.heritage/place.history>)

백천의 옛 모습에 대한 기억은 김사준, 김경란, 김찬영, 유청일, 이석천 등의 말을 종합해 봐도 1960년대 이후이다. 김사준은 1970년대에는 백천계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백천마을을 하백(현불사 주변), 중백(지금의 공원마을지구), 상백(계곡 상류, 집이 한 채 있는 곳)이라고 했고, 윗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백천마을엔 가장 많은 가구가 살았던 시기는 화전민을 철거하기 전인 1960년대로 당시엔 78가구나 살았다. 화전민이 철거된 1970년대에도 이후 백천마을엔 14가구 정도가 살았으나 지금은 6가구가 살고 있다.

백천마을에는 6집이 있으나 1가구는 태백 철암에 살며 왔다 갔다 하고, 백천마을 가장 위에 있는 집은 현불사 스님이 살고 있어 실제 백천마을에서 살림을 하는 가구는 4가구나.

화전민

1940년 경성제국대학의 위생조사부에서 낸 보고서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1926년에는 3만여호, 1931년에는 4만여호, 1935년에는 7만여호로 증가하였다. 1935년 이후로는 일제의 북선개척사업으로 화전민의 수가 감소하였다. 화전민의 토지 생산성은 극히 낮아 소작료도 이윤도 모두 성립하지 않았으며, 잉여생산물도 없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정도만 수확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로 임야도 신고하게 하였으며 미신고된 토지는 국유화했으며 삼림령을 내려 화전민 박멸 정책을 수행하였다. 화전민의 호구지책으로 행하는 삼림벌채로 매년 4천건에서 8천건이 입건되었다. 남한에서는 1968년 '화전정리법'으로 강원도 산간지방에 남아 있던 화전민을 다른 지방에 정착시키기 시작하여 1976년에 화전정리가 종결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사진. 마을에서 살림을 하는 가구 (강창희)



사진. 마을에서 살림을 하는 가구 (이석천)



사진. 마을에서 살림을 하는 가구 (김찬영)



사진. 마을에서 살림을 하는 가구 (김사준)

‘상백 쪽에만 50집 정도 살았다. 태백산 아래 흩어져 사는 집이 50집이었다는 이야기다. 상백은 화전민들이 살던 곳을 말한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간 것은 70년대이다. 울진 삼척사건 후에 다들 나갔다. 그 후에도 화전이 있긴 했지만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 내가 백천에 들어올 때(1976년쯤) 백천에는 14집 정도 살았다. 윗마을(상백)에도 6가구가 있었다. 당시 여기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나갔다. 여기서 농사지어야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불사 자리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백천에는 6가구가 있다.’ - 김사준 (1933년생)

‘백천은 60년대 중반, 내가 들어올 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다. 오히려 축소되었다. 머리골, 상골, 칠반메기골 등 골골마다 10여 가구 이상이 살면서 화전을 했다. 70년대 말 화전민을 내보내는 정책을 폈다. 울진삼척공비침투사건 때문에 위험하다며 집을 지어 주고 이주시켰다. 그곳이 대현2리, 열목어마을 있는 곳이다. 그때 지어진 집의 형태는 다 바뀌었다. 그 때 다 나가고 남은 가구가 6가구다.’ - 이석천 (1948년생)

‘70년대에는 가구 수가 지금보다 많았다. 동갑내기가 7명이나 됐다. 많은 사람들이 나간 것은 차츰차츰 먹고살기 힘들니까 나간 것 같다. 화전이 끝날 때 나가고, 현불사 절 지으면서 다들 밖으로 나갔다. 숲 공장은 얘기만 들었다. 10살 때(1981년) 가 봐도 숲 공장, 화전민은 없었다.’ - 김찬영 (1971년생)

‘백천마을은 상백, 하백 이렇게 불렀다. 백천마을에 가구가 가장 많을 때는 78가구나 살았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마을에 사람이 많았는데, 1970년대 초반에는 48가구쯤 되었다. 내가 있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백에 13집, 하백에 17집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의 일이다. 1980년대 상백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백은 그 후에 정착했다고 보여진다. 위험하다 해서 상백만 소개했다. 어릴 때 예비군들이 집에서 지켰고 군인들이 많이 와있었다. 현재는 6가구가 산다. 마을 모습은 지금과 예전이 크게 달라진 것 없다.’ - 유창일 (1961년생)

3) 마을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들

① 연화광산 개발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 있었던 납·아연 광산이다. 연화제1광산(蓮花第一鑛山)이라고도 한다. 1935년 일본인이 발견, 소규모 탐광을 계속해 오다가 1961년 2월 영풍광업주식회사(永豐鑛業株式會社)에 인수된 뒤 본격적인 개발을 하게 되었다. 인수 당시의 선광 시설은 월 처리 2,000톤 규모였는데, 1977년 4월부터 월 처리 6만 톤 규모로 증설되었다. 현재는 대절갱하 600ML에 컨베이어시스템(총길이 2,400m)을 설치하여, 월 10만 톤의 광석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량은 1,080만 톤 정도이나 확정 광량은 약 290만 톤이다. 1980년의 경우 64만 톤의 원광을 처리하여 납 8,500톤, 아연 4만 5,000톤의 정광(精鑛)을 생산한 바 있으나 연간 생산량은 납이 7,932톤(1984), 아연이 3만 5,279톤(1984), 은이 6,655톤(1983)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원광을 수출해 왔으나, 영풍상사(永豐商社)에서 석포역 부근에 제련소를 설치한 뒤 자체 제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8월에 폐광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진. 연화광업소 직원들이 사용하던 아파트



사진. 1964년 신년기념사진- 연화광업소 직원들
(사진출처 : 다음카페-영풍광우회)

백천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연화광업소가 있을 당시에 대현리는 굉장히 큰 마을이었고, 대현초등학교에 학생 수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연화광업소 직원들 중에 백천마을에 들어와 산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대현에 연화광업소가 있었는데 종업원 수가 3,000명이었던 때도 있었다. 당시(1970년대 초) 대현초등학교 학생 수가 700명이나 됐다.’ - 김사준 (1933년생)

‘종업원이 700명이나 됐고, 사택에서 살았다. 광업소가 있던 뒷산이 연화산이다. 연화광업소는 일제 때 개발됐고, 일제 후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방산업체여서 연화광업소에서 일하면 군대에 안가고, 면제해 줬다. 80년 초반까지, 20년 동안 경기가 좋았다.’ - 이석천 (1948년생)

‘아연광업소가 있어 대현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많았다. 광업소 문 닫으며 다 빠져나갔다. 그 당시는 대현에는 80가구나 살았었다. 아연광산에 다녔던 분들은 대현에 살았다. 백천에는 살지 않았다.’ - 김찬영 (1971년생)

‘연화광업소 있을 때는 대현이 컸었다. 아파트도 있었다. 그때 사용하던 아파트는 대순진리회에서 샀다. 대순진리회에서 사기 전에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들어와 살지는 않는다.’ - 김경란 (1948년생)

② 열목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우리나라에 열목어 서식지와 관련하여 천연기념물,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표1과 같다. 이중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는 1962년 12월 7일 천연기념물 제74호로 지정되었다.

표1. 열목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관리자
1	천연기념물 제73호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旌善 淨岩寺 熱目魚 棲息地)	강원 정선군	정선군
2	천연기념물 제74호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奉化 石浦面 熱目魚 棲息地)	경북 봉화군	봉화군
3	강원도기념물 제67호	홍천명개리 열목어 서식지 (洪川明開里 熱目魚 棲息地)	강원 홍천군	홍천군



사진. 백천계곡 열목어



사진. 백천계곡 열목어



사진. 백천계곡 열목어



사진. 백천계곡 열목어

표2.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현황

종 목	천연기념물 제74호
명 칭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奉化 石浦面 熱目魚 棲息地)
분 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생물과학기념물/분포학
지정(등록)일	1962.12.07
소 재 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26번지 외
소유자(소유단체)	봉화군 외
관리자(관리단체)	봉화군

열목어는 연어과에 속하며 20℃ 이하의 차가운 물에서 사는 민물고기이다. 몸의 바탕색은 황갈색이며 머리·몸통·등에는 자갈색의 무늬가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고 배쪽은 흰색에 가깝다. 알을 낳을 때는 온몸이 짙은 홍색으로 변하며,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 부분에는 무지개빛의 광택을 내어 아름답다.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산다.

우리나라에서는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상류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하천에서 가장 상류의 시원한 곳에서 살고, 겨울에는 중류지역까지 내려와서 월동한다.

봉화 석포면의 열목어서식지는 세계에서 열목어가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지역이며, 숲이 잘 발달하여 열목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지닌 지역 가운데 하나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사진. 천연기념물 제74호 표지석과 안내판



사진. 멸목어서식지 안내 간판



사진. 천연기념물 제74호 안내판



사진. 천연기념물 제74호 표지석



사진. 멸목어서식지 출입금지 현수막



사진. 멸목어 서식지 안내판



사진. 멸목어 서식지 관리사무소



사진. 천연기념물 서식지 밖 마을휴양지

‘1985년도에 범당 짓고 연못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열목어를 키웠다. 당시 계곡에는 열목어가 거의 없었다. 총무였던 강정섭(돌아가심)님이 홍천 내면에서 열목어를 가져와서 키우기 시작했다. 봉화군 자원개발계에서 함께 했다. 지금의 농업기술센터다. 봉화에 있던 양어장 주인 홍주선 님의 기술자원을 받고, 내면에 있던 강원도민물고기센터도 가보고 했다. 기술이나 자료도 없던 시기였다. 부화하면 다 실패했다.

1990년도부터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 1993년도에 부화에 성공했다. 부화한 열목어는 1995년부터 방류했다. 방류행사에 경상북도 도지사도 참여했다. 백천계곡, 반야계곡 등 3곳에 방류했는데 예전에 열목어 살던 곳이었다. 반야계곡에서의 복원은 성공하지 못했다.

백천계곡은 태백사람들이 와서 놓고, 먹는 곳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어도 텐트치고 등 놀이문화가 여전했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산가리를 뿌려서 고기를 잡아먹었다.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특별한 통제가 없으니 그랬던 것 같다. 장성 쪽에서 넘어와 고기 잡고 놓고 그랬다.

큰스님께서 백천계곡 안에는 광산이 많고 광권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열목어가 있으니 광산개발을 못한다고 하셨다. 천연기념물이라서, 열목어를 보호하면 환경이 살아나는 계기가 된다고 하셨다.

백천마을 주민들은 열목어가 많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적정수준이다. 열목어는 어디서든 잡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2급 보호종이다. 열목어들은 황지천에서도 볼 수 있다. 큰물이 지면 보인다. 구문소 입구에서는 봤다. 열목어는 많아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열목어를 먹으려고 수달이 생기면서 열목어 개체 수는 유지된다.

열목어는 회유성 고기로 정체된 곳에서 움직인다. 육지에 토착된 어종이다. 열목어 큰 것은 60cm 정도 된다. 구문소에서는 70cm 되는 것도 있었다. 요즘 보이는 것은 50~60cm 정도이다. 손바닥 크기인 것은 2~3년쯤 된 것이다. 성어가 되었다는 것은 50cm 이상이라고 봐야한다. 3~4년이 지나면 50cm 정도 된다. 산란은 3년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 지금 연못에 있는 것들은 계곡에서 잡아넣은 것이다. 열목어는 육식성이라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다. 겨울에는 열목어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먹잇감이 된다.

열목어를 찍기는 쉽지 않다. 열목어는 수중촬영을 해야 할 것이다. 두타연 등에서는 모였다가 여울을 치고 올라가니 많아 보이는 거다. 여기는 좀 다르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기 쉬운 곳은 다리 아래, 절 옆 관찰대 정도다.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열목어가 있으니 광산권을 못하게 되었으니 열목어 덕분에 이 계곡이 살아난 거다. 덕도 보지만 실도 많다. 현불사도 뭔가 하려면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집을 짓고 싶어도, 화장실을 지으려 해도 안 된다. 백천계곡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마을도 변화한 게 하나도 없다. 사중씨 집은 주택 허가를 받아 약간 개조했다.’ - 정호 스님 (1956년생)



사진. 현불사 내 열목어가 살고 있는 연못



사진. 현불사 연못에 살고 있는 열목어



사진. 현불사 연못에 살고 있는 열목어



사진. 현불사 연못에 살고 있는 열목어



사진. 현불사 내 열목어 서식지 안내판



사진. 현불사 정호 스님

1962년 백천계곡은 열목어 서식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은 되었지만 열목어 서식지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열목어는 멸종단계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민 일부와 현불사 스님들의 협력 속에 열목어 복원사업이 진행되었고, 복원과 함께 서식지 보전을 위한 출입통제, 포획 금지 등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이 결실을 맺어 지금 백천계곡은 열목어의 주요 서식지가 되었다.

백천계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백천마을은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어려웠다. 백천마을의 모습이 5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천연기념물 지정 때문이다.

‘열목어 보호활동과 관련하여 1995년에 신문(매일신문)에 기사화되었다. 군에서 정리해서 신문에 냈다고 들었다.’ - 김사준 (1933년생)



그림3. 열목어 보호활동 관련 신문 기사 1



그림4. 열목어 보호활동 관련 신문 기사 2

‘여기는 1962년 열목어 서식지로 지정되면서 외부와 단절되었다. 사람들이 계곡에 들어가지 않으니 계곡도 산도 보전되었다.’ - 이석천 (1948년생)

‘백천계곡과 관련해서 마을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나는 이곳이 좋다. 사람들에게 어릴 때 좋은 곳에서 살았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입금지구역이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은 됐어도 계곡에서 텐트치고, 취사했다.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다. 단속을 심하게 한 건 얼마 안됐다. 그게 아니면 완전 개발되었을 것 같다. 그랬다면 나도 여기 살고 있지 않을 거 같다.’ - 김찬영 (1971년생)



사진. 백천마을 초입 열목어 안내판



사진. 백천마을 초입 열목어 관찰대



사진. 백천명품마을 안내판



사진. 백천명품마을 열목어 조형물



사진. 백천명품마을 열목어 조형물



사진. 백천명품마을 열목어 조형물

③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반발

1968년 11월 120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유격대 활동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한 사건이다.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의 무장 공비 120명이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하여 12월 28일 대한민국의 토벌대에 소탕되기까지 약 2개월간 게릴라전을 벌인 사건이다. 이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최대 규모의 도발로, 침투한 무장공비 중 7명이 생포되고 113명이 사살되었으

며, 남한 측도 민간인을 포함하여 40명이 넘게 사망하고 30명이 넘게 부상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출처 : 위키백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울진삼척에서 무장공비 사건이 났는데, 여기서 그곳까지 직선거리로 100km 남짓이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강원도, 경상북도 등의 화전민들은 모두 산 아래로 내려 보냈다. 집을 지어주고, 산에서 내려오게 했다. 백천에 살던 사람들 중 대현에 자리 잡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멀리 떠났다. 여기에 소유한 땅이 없으니 여기에 다시 올 일도 없어 왕래가 끊겼다.’ - 이석천 (1948년생)

‘대현에 예전 독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없다. 원하는 대지에 월세를 주면 집을 짓도록 했다. 월세는 토지 주인에게 줬다. 돈이 있으면 좀 좋게 짓고 돈이 없으면 정부에서 나온 그대로 지었다. 살던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 유창일 (1961년생)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은 백천계곡 상류 곳곳에 흩어져 살던 화전민들을 산에서 내려오게 했다. 산에서 내려온 화전민들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일부 대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어준 독가촌에 살았다.

④ 현불사 창건

현불산은 불승종의 총본산으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백천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현불사 도량 내에는 법화경 연구와 선,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부대중이 불법의 수행을 위해 다 같이 정진하는 장이 되어 대승불교의 정신을 지향한다.

그러한 수행을 통하여 묘법연화경이 담고 있는 실상진리를 광선유포하고, 말법시대를 살고 있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귀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도량의 가장 큰 이념으로 삼고 있다. (출처 : 현불사)



사진. 현불사 입구에서 바라본 태백산



사진. 현불사

‘마을 끝에 있는 현불사 관련 집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절 소유다. 통제소 앞 절 집에는 스님 한 분이 항상 거주한다. 공양하러만 내려온다. 현불사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는 큰스님이 법조계에 계시다가 구속되어 재판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때 삶이 허무하게 느껴져 죽으려고 설악으로 들어갔다. 죽으려고 굶고 앉아 있다가 동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큰스님께서 법화경을 3번 봤는데, 한번은 글자로 보고, 다음은 내용으로 보고, 세 번째는 세상의 이치를 봤다고 한다. 법화경을 통달하신 거다. 그리고 법화경을 펼치려 세상에 나오셨다.

깨달음을 얻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생 솔잎을 먹으려하니 키 작은 어르신(무형조사?)이 와서 ‘야 이놈아 솔잎을 그냥 먹으면 되니, 흠하고 섞어 먹어야지.’하며 야단을 치셨다. ‘상생상극도 모르는 놈이 무슨 도냐?’그러셨다고 한다. 솔잎은 그냥 먹으면 변비가 생기니 익혀서 다른 것과 섞어 먹어야 한다는 거였다.

무형조사 밑에서 여러 경험 후에 어느 절을 좀 봐달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머슴처럼 일하며 법을 펴기 시작했다. 법이 알려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니 좁아서 이리로 옮겼다. 이 자리를 보고 단군할아버지가 점지한 자리라 하셨다.’ - 정호 스님 (1956년생)

‘맨 윗집은 현불사 스님 집이다. 공양할 때만 절로 내려가신다. 초파일 전후에는 절에 내려가 계신다. 내가 초등학교 때 현불사 법당을 지은 것으로 기억된다.’ - (김찬영 (1971년생))



사진. 백천마을 맨 윗집에 사는 스님 방



사진. 맥천마을 맨 윗집 스님이 현불사에 다닐 때 타고 다니는 자전거

현불사가 백천계곡에 자리 잡으며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다. 백천마을 맨 윗집은 현불사 스님이 살고 있는데, 마을에서 살림은 하지 않고 현불사와 집을 왔다갔다하며 살고 있다.

⑤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태백산은 1989년 5월 13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우리나라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전체면적은 70.052km²이다. 태백산국립공원은 수천 년간

제천의식을 지내던 천제단과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야생화 군락지인 금대봉~대덕산 구간, 만향재, 장군봉 주변의 주목 군락지, 세계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계곡 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 : 태백산국립공원)



사진. 태백산국립공원 랜드마크



사진. 태백산국립공원 백천탐방지원센터



사진. 백천계곡에 붙은 국립공원 지정 환영 현수막



사진. 백천계곡 걷기에서 열린 국립공원 이동장터 현수막

4) 마을의 자연문화자원

① 소나무 - 산림청 지정 보호수

산림청은 보존 및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중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산림법 제67조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이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게 되어 있다. 산림청 지정 보호수는 1999년 말, 현재 10,339 그루이다. (출처 : 산림청)

표3. 백천마을에서 부쇠봉으로 오르는 길의 산림청 지정 보호수 '소나무' 현황

구분	내용
고유번호	2011-1
수종	소나무
수령	305년
수고	20m
흉고직경	120cm
나무둘레	376cm
지정일자	2011.12.30.
소재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관리자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

백천마을에서 부쇠봉으로 오르는 길에 있는 소나무는 수령 305년이며, 높이는 20m, 가슴둘레지름은 120cm이다. 보호수는 백천계곡 끝에서 부쇠봉 방향으로 450m를 올라가면 나온다.



사진. 산림청 지정 보호수 '소나무'



사진. 산림청 지정 보호수 '소나무'



사진. 보호수 안내 간판



사진. 백천계곡 끝에 설치된 보호수 안내목

② 당집

백천마을 당집은 김사준 집 앞 계곡 건너편에 있다. 당집은 나무로 지어졌으며 한 평도 안 되는 소박한 크기이다. 김사준은 백천마을로 들어와 당집을 한번 수리했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서 백천계곡 길을 따라 걷다보면 당집 못 미쳐 오른쪽 숲 초입에 새끼줄을 두른 당산나무를 볼 수 있다.



사진. 계곡 건너에서 바라본 당집



사진. 가까이서 본 당집



사진. 가까이서 본 당집



사진. 당산나무에 걸린 새끼줄

③ 옷물

옷물은 김경란 집 왼쪽 밭과 야산 경계에 있다. 옷물은 옷을 탄 사람에게 특히 잘 들어 ‘옷물’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옷물이 나오는 곳은 김경란의 집 바로 옆에 있는데, 김경란이 집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옷물의 효험은 주변에 소문이 나 이웃들은 김경란이 집에 없어도 옷 등의 피부병이 왔을 때 물을 떠서 바른다고 한다.



사진. 옷물이 나오는 곳



사진. 옷물을 설명하는 김경란

‘옷물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한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은 예전에는 명기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와서 이 물을 바르며 병을 고치고 간 후 명기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 물은 확실히 피부에는 좋다. 아이들 키울 때도 몸에 부스럼이나 땀띠 났을 때 물을 손수건으로 적셔서 닦아주면 금방 좋아졌다. 저 아래 모리가든, 그 집 신랑도 옷이 울랐을 때, 여기 와서 씻고 나왔다. 내가 집에 없을 때였는데 아이들이 모리가든 아저씨가 과자를 갖다 놨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 옷물로 씻고 나와서 고마워 놓고 갔다고 했다.

장성에 사는 어떤 분도 아들이 몸에 뭐가 나서, 이 물로 씻어주니까 좋아져서, 아들이 30살이나 됐는데 부스럼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물로 몸을 씻고 좋아져서 그 후에 다시 와서 물을 사갔다. 다른 사람들도 이 물로 효험을 본 후에는 과자나 돈을 놓고 갔다. 그래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옷을 탄 사람에게 잘 듣는다고 해서 옷물이라고 하는 것 같다. 옷물 때문에 우리 집을 옷물둔치집이라고도 한다.’ - 김경란 (1948년생)

④ 디딜방아

김경란의 집에는 디딜방아가 있다. 디딜방아는 50년 정도 되었는데, 김경란의 시아버지가 만들 것이다. 디딜방아는 시아버지가 살던 곳에 있던 것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백천마을에 있는 김경란의 집으로 옮겼다.

김경란은 마을에 살며 디딜방아로 옥수수도 뿜고, 수수와 보리도 찌었다. 떡을 할 때도 이 디딜방아를 이용했다고 한다.

디딜방아

방아의 주된 기능은 바수기·짚기·갈기·빻기·치기 등이다. 디딜방아는 주로 알곡과 가루를 내는 데 쓰였고 그 원형은 석기시대의 연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석은 돌확과 절구의 두 형태로 발전했는데 절구에서 디딜방아·물방아·물레방아 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사회에서도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디딜방아는 방아와 확으로 이루어진다. 땅을 움푹 파서 홈파진 절구확을 묻어 놓은 것을 확이라 하며, 방아는 나무로 만들어져 두 다리 또는 외다리로 되어 있다.

디딜방아는 보통 2명이 딛는데 1명이 방아에 올라서서 힘을 주면 다른 1명은 계속 확에 알곡을 집어넣는다. 3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늘어뜨린 방아줄을 붙잡고 방아를 짚는다. 협동이 잘 되어야 효율성도 높고 힘이 적게 들며, 일할 때는 방아타령을 불러 신명을 돋우기도 한다. (출처 : 다음백과)

⑤ 마을경관

백천마을은 4계절이 다 아름답다. 이는 경관을 저해하는 인위적 건축물이 없어 어디에서든 스카이라인이 살아있고, 계곡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가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준비한 백천걷기 프로그램을 따라, 백천마을 입구에서 백천계곡 상류를 걸어가며 마을길에서 바라본 경관을 촬영했다.



사진. 백천마을 1. 열목어 관찰대



사진. 백천마을 2. 명품마을 안내판



사진. 백천마을 3. 마을둘레길 초입



사진. 백천마을 4. 투방집



사진. 백천마을 5. 마을둘레길 아래



사진. 백천마을 6. 사과부자집



사진. 백천마을 7. 큰바우집 앞에서



사진. 백천마을 8. 큰바우집 앞 토종벌통



사진. 백천마을 9. 나무다리집



사진. 백천마을 10. 나무다리



사진. 백천마을 11. 당산나무 숲



사진. 백천마을 12. 당산나무



사진. 백천마을 13. 당집



사진. 백천마을 14. 멀리 옛집과 고랭지 배추밭



사진. 백천마을 15. 옛집



사진. 백천마을 16. 옛집을 돌아보며



사진. 백천마을 17. 백천탐방지원센터



사진. 백천마을 18. 무궁스님 집



사진. 백천마을 19. 계곡 깊은 길에서



사진. 백천마을 20. 계곡 깊은 길에서



사진. 백천마을 21. 계곡 깊은 길에서



사진. 백천마을 22. 계곡 깊은 길에서



사진. 백천마을 23. 계곡 깊은 길에서



사진. 백천마을 24. 계곡 깊은 길에서

5) 마을 주변의 자연·문화 환경

① 태백산

태백산은 백두대간의 중앙부에 솟아 있는 민족의 영산이며, 한강과 낙동강, 삼척의 오십천이 발원하는 한반도 이남의 젖줄이 되는 뿌리산이다. 태백산은 천제단이 있는 영봉(1,560m)을 중심으로 북쪽에 장군봉(1,567m) 동쪽에 문수봉(1,517m), 영봉과 문수봉사이의 부쇠봉(1,546m)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봉은 함백산

(1,572m)이다.

함백산을 포함하여 산봉·기암·괴석 등 경관자원 13개소가 분포되어 있으며, 여우, 담비, 개병풍 등 멸종위기종 22종과 천연기념물 10종(열목어, 붉은배새매 등) 등을 포함하여 총 2,637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중요민속문화재 제228호인 태백산 천제단 등 지정문화재 3점을 포함하고 있어 생태·경관,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

태백산 정상부에는 고산식물이 많이 자생한다. 특히 국내의 대표적 주목 군락지로 유명하며, 봄이면 산철쭉, 진달래의 군락지가 등산객을 맞이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수목과 차고 깨끗한 계곡물이 한여름 더위를 잊기에 충분하며 가을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수놓으며 겨울은 흰 눈으로 뒤덮인 주목군락의 설경을 보여 주는 곳으로 남성다운 중후한 웅장함과 포용력을 지닌 육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아름다우며, 맑은 날 멀리 동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것도 태백산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이다. (출처 : 태백산국립공원)



사진. 태백산국립공원 천제단 안내표시목



사진. 태백산국립공원 망경사 전경



사진. 태백산국립공원 단종비각



사진. 태백산국립공원 천제단



사진. 태백산국립공원 천제단 안



사진. 천제단에서 바라본 태백산 능선



사진. 태백산국립공원 주목

② 백천계곡

태백산 문수봉과 청옥산 사이에서 시작되어 조록바위봉까지 이르는 12km의 백천계곡은 낙동강의 상류이며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빙하기 어족인 열목어(천염기념물74)가 자생하고 있으며 이 일대는 천염기념물 및 천연림보호지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계곡내에 현불사가 있다. (출처 : 봉화군청)

백천계곡은 태백산에서 발원한 옥계수가 해발 650m 이상의 높은 고원을 16km에 걸쳐 흐르면서 만들어낸 계곡이다. 백천계곡은 발원 태백산을 비롯하여 연화봉(1,052m), 청옥산(1,276m), 조록바위봉(1,087m) 등의 높은 산에 폭 감싸여 있어 계곡의 물이 맑고 수온이 낮다. 백천계곡은 물이 맑으며 수온이 낮아 같은 위도 상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열목어가 산다. 열목어가 사는 세계 최남단 지역으로, 열목어의 남방한계선인 셈이다. 열목어는 빙하시대에 살던 어족으로 눈이 붉고 몸통은 은빛이며 눈사이, 옆구리, 지느러미 등에 붉은색의 작은 무늬가 있다.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공해에 민감한 어족으로 물 속에 산소가 충분히 녹아 있어야(산소함량 10ppm) 살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열목어가 백천계곡에 있다.

백천계곡은 대현리의 연화광업소와 대현 초등학교를 지나 "현불사"라 쓰인 표지판

을 따라가면 나온다. 현불사에는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희생된 원혼들을 위로하는 호국영령위령탑이 있다. 백천계곡을 지나 조록바위봉 정상에 올랐다가 백천마을로 하산하는 등산로가 있다. 이 길은 4시간 정도 소요된다. 2006년 9월 석포면사무소의 지원 아래 백천계곡 태백산등산로에 대형 종합안내판 및 위치 표시판, 위험구간 로프 설치 등 일반인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설하였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진. 백천계곡 - 국립공원경계 밖



사진. 백천계곡 - 국립공원경계 밖



사진. 백천계곡 - 국립공원경계 안



사진. 백천계곡 - 국립공원경계 안



사진. 백천계곡 - 국립공원, 차단기 안쪽



사진. 백천계곡 - 국립공원, 차단기 안쪽



사진. 백천계곡 상류지역 길 안내판



사진. 백천계곡 상류지역 차량 차단기



사진. 백천계곡 차단기 앞 백두대간 안내 간판



사진. 백천계곡 차단기 앞 산불조심 등 알림 현수막

③ 청옥산 자연휴양림

영주-태백 간 국도변에 위치한 청옥산 자연휴양림은 1,276m의 청옥산을 주봉으로 해발 700~900m의 크고 작은 능선이 변화무쌍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80여 종에 달하는 침·활엽수가 서식하고 있는데, 특히 춘양목 우량 임지가 있어 숲으로는 전국 최고의 휴양림이다. 봄철 계곡 부위에 자생하는 함박꽃나무 꽃이 장관을 이루며, 여름철엔 울창한 산림에서 더위를 잊고 산림욕을 하기에 알맞은 장소다. 한편, 인근 백천계곡에는 천연기념물 74호인 세계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와 현불사가 있고, 인근 태백에는 태백산과 낙동강 발원지, 도계읍 미인폭포가 있어 둘러볼 만하다.

캠핑장계의 호텔 5성급이라 불리며, 주 고객층이 캠핑 마니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토캠핑장 내에는 전국 유일한 복층구조의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5m 이상의 야영데크가 2개소가 있으며, 야영장 4개소/야영데크 106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야영에 없어서는 안 될 온수가 24시간 제공되며 35면의 야영데크에는 전기 또한 제공된다. 피톤치드로 가득한 청옥산 자연휴양림은 야영도하고 건강도 챙기는 1석2조의 휴양림으로 손꼽힌다. (출처 : 청옥산 자연휴양림)

④ 평천 드르네굴

드르네는 고지대 속의 평지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드르네마을 입구 발 언저리가 자리 잡고 있다. 드르네굴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으며, 2004년 환경부는 전국 자연동물 조사결과를 통하여, ‘평천굴(드르네굴)은 커튼, 석순, 유석 등 동굴생성물이 다양하며, 동굴미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박쥐류, 나방류, 툽토기류 등 동굴생물이 다양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하다.’⁶⁾고 하였다.

⑤ 승부역

승부역(承富驛)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에 있는 영동선의 역이다. 역 인근에 작은 마을이 있을 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역 이용객은 사실상 전무했는데, 1999년 환상선 눈꽃순환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로는 접근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오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어 신호장에서 보통역으로 다시 승격되었다.

2012년 6월 27일 시각표 개정으로 부산-강릉 주말 무궁화호를 제외한 모든 열차가 정차하며, 2013년 4월 12일 중부내륙순환열차 O-Train과 백두대간협곡열차 V-Train도 개통해 이 역에 정차하고 있다.

승부역은 역무원이 있지만 승차권을 사는데 불가능하며,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구매해야 하는 차내 취급역이다. (출처 : 위키백과)

6) 마을 주변의 지명 유래

- 대현(大峴) : ‘한티’라는 큰 고개가 있어 대현 또는 한음(寒陰)이라고 했다.
- 속세골 : 언덕 위에 자생하는 억새(속새)가 많았다.
- 드르네·평천(坪川) : 300여년 전 강원도 정선에서 강릉 정씨와 삼척에서 이주해 온 김해 김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그 후에 진주 강씨가 또 이사와서 살았다. 천연동굴이 있다.
- 달바위골 : 달바위(月峰)가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 백천(栢川) : 천연기념물 제74호인 열목어 서식지이다. 골이 깊고 수목이 울창하다. 현불사와 삼신암이 있다.
- 늘구지·널구지(訥尤邱地) : 암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곳에서 누었다하여 ‘누울구지’라고 하다가 늘구지로 변했다.

6) 2003년도 전국 자연동물 조사결과(2004.05.), 환경부



사진. 백천마을로 들어가는 다리 (널구지교)



사진. 달바위봉 등산안내도 간판

- 둔지(屯地) : 옛날에 군사들이 주둔했던 곳이라고 한다. 창과 칼을 벌려 세워놓았다고 하는 ‘창벌이’라는 지명도 있다.
- 청옥산 : 산나물이 많이 난다. 자연휴양림이 있다.7)

지명에 대한 유래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은 병오천은 잘못된 지명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 지명에 대한 유래는 잘 모른다. 화전민이 살던 곳이니, 살다가 나가니 유래에 대해 알기가 힘들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냥 사용한다. 화전촌의 특성이기도 하다. 백천계곡을 병오천이라고도 부른다는데 우리는 병오라는 이름이 생소하다. 태백산국립공원 병오분소라고 쓰고 있는데 백천분소라고 해야 한다.’ - 이석천 (1948년생)

‘병오동은 현불사 뒤쪽이다. 오동나무가 큰 게 있어서 병오동이라 불리다가 병오로 불리게 됐다. 방구집, 김찬영 집에 큰 바위가 있어 방구집이라 불렸다. 이곳에서는 바위를 방구라 한다.’ - 유창일 (1961년생)



사진. 백천계곡에 세워진 병오천 표지판



사진. 태백산국립공원 병오분소 설치 관련 안동 MBC 뉴스 캡처

7) 봉화군지 제1장 읍면별 지명유래 914쪽 참조

‘지도에 병오천이란 기록이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백천계곡이라 부른다. 이장님 말씀으로 병오는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서있는 모습, 현불사 맞은 편에 있는 바위들이 병사들이 서있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김찬영 (1971년생)

‘조록바위는 바위돌이 조롱조롱, 포도열매 달리듯이 서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김사준 (1933년생)

II 주민 현황과 생활문화환경

1. 주민 현황

1) 주민 현황

백천마을에 관한 기록이 없고, 1960년대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없어 1960년대 이전 백천마을에 몇 가구, 몇 명이 살았는지는 알기 어렵다. 표4는 김사준, 김찬영, 유창일, 이석천 등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백천마을에 살던 가구 수를 추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4. 1960년대 이후 백천마을의 가구수 변화 추정

구분	백천마을	비고
1960년대	78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년 연화광산 본격 개발 • 1962년 열목어서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 1968년 울진삼척간척사건반발
1970년대	48가구 (초반) 14가구 (중반)	• 1970년대 화전민 정리사업
1980년대	6가구	• 1980년 현불사 창건
1990년대	6가구	• 1998년 연화광산 폐광
2000년대	6가구	
2010년대	6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국립공원 지정 • 실제 살림 가구는 4가구

2017년 12월 현재 백천마을에는 6가구가 있으나, 1가구는 낮에만 잠깐씩 왔다갔다 하며, 1가구는 현불사 스님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백천마을에서 실제 살림을 하는 가구 수는 4가구이다.

2017년 12월 현재, 백천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표5에서 보는 것처럼 7명이며, 성별은 남성 5명, 여성 2명이다.

표5. 백천마을에 거주하는 인구 수 (2017년 12월 현재)

구분	가족 수	실 거주 인원					비고
		총수	남	나이	녀	나이	
강창희	1	1	1	54	-	-	
김사준	2	2	1	84	1	76	
김경란	2	0	-	-	-	-	
김찬영	1	1	1	46	-	-	
무궁	1	1	1	69	-	-	현불사 스님
이석천	2	2	1	69	1	62	
계	9	7	5		2		

표6. 사람들이 백천마을에 거주한(했던) 시기

구분	출생 년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강창희	1963						2016
김사준	1933		1976				
김옥자	1941		1976				
김경란	1948		중반			2002	
김석기	1943		중반			2002	
김찬영	1971		1971				2015
무궁	1948			후반			
유창일	1961	1963		1982			
이석천	1948		중반				
권옥선	1956		중반				

2) 주민들이 백천마을로 들어온 시기와 이유

표7은 현재 백천마을에 살거나, 집을 가지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들이 백천마을에 들어온 시기이다. 백천마을에서 태어난 주민은 김찬영 1명이며, 나머지는 외부에서 들어왔다.

주민들이 들어온 시기는 이석천이 1960년대, 김사준(김옥자)이 1970년대, 무궁이 1980년대, 강창희가 2010년대 등이다. 현재 백천마을에는 살지 않지만 유창일이 1960년대, 김경란(김석기)가 1970년대에 들어왔다.

표7. 백천마을 주민들의 생년과 고향, 백천에 들어온 시기

이름	생년	고향	백천으로 들어온 시기
강창희	1963	춘양 (경북 봉화)	2016년
김사준	1933	춘양 (경북 봉화)	1976년
김옥자	1941	춘양 (경북 봉화)	1976년
김찬영	1971	백천 (경북 봉화 석포)	1971년 (태어남)
무궁	1948	공주 (충남)	1980년대 후반
이석천	1948	삼척 (강원도)	1960년대 중반
권옥선	1956	영주 (경북)	1970년대 중반

백천마을과 관계를 맺었던 각자가 어떤 사연으로 마을에 들어왔는지 들어보았다.

‘백천마을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많이 왔었고, 마을에 땅과 집이 있기 때문이다. 증조할머니 산소가 바로 앞에 있다. 증조할아버지가 여기서 농사짓고 생활하였다. 이 집의 소유자는 나다. 아버지 소유였는데 내가 맏이라 나에게 상속되었다. 나는 태백 금천에 살면서 산소에 다녔다. 고향은 춘양이고 외가가 금천이다. 태백 금천에서 1978년까지 살다가 다시 춘양으로 들어갔다. 어린 시절은 금천에서, 직장은 부산에서 다녔다. 종교는 불교다. 부산에 있는 절에 다닌다. 증조할머니 산소 가는 길에 현불사는 한 번씩 가봤다.

2016년 가을(11월), 백천으로 들어왔다. 직장생활하다 힘들어서 그만 두고 들어왔다. 가족들은 부산에 있다. 장기적으로 가족들도 여기로 들어올 생각이다.’ - 강창희 (1963년생)



사진. 강창희 님



사진. 김사준, 김옥자 부부

‘5년 군 생활 후 제대하자마자 결혼했다. 아내는 신사년 뱀띠(1941년생)다. 늦재(늦재)에서 큰 밭을 내 손으로 일구어 9년(29살~38살) 살았다. 대현으로 이사 온 건 38살(1971년) 때이고, 대현에서 5년 살다가 43살(1976년)에 백천으로 들어왔다. 아이들 7명 데리고 들어왔다. 백천에서 1명 더 낳아 슬하에 3남 5녀를 뒀다.

대현으로 와서 5년 농사지어 돈 만들어, 돈 쓸려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까지 합쳐서 받았다. 그때 돈이 많이 늘어났다. 그 돈으로 양계를 시작했다. 200수 정도 되었다. 양계를 정리한 후에는 중화요리집을 시작했다. 중화요리집을 하며 많이 힘들었다. 대현은 광산촌이라 외상도 많았다. 중화요리집을 3년 하면서 밀천까지 털어먹었다. 중화요리집을 정리하며 빚을 청산하려하니 돈이 모자라서 야반도주 생각도 했지만 빚쟁이 아이들이란 말 듣게 하면 안 된다 싶었다. 그래서 농사지어 빚도 갚고 먹고 살기위해 백천으로 들어왔다.’ - 김사준 (1933년생)



사진. 김사준 군대시절



사진. 김사준의 동생 결혼식



사진. 김사준



사진. 김옥자



사진. 김경란



사진. 김찬영

‘우리는 42년 전에 여기로 들어왔다. 42년 전 이곳으로 들어온 계기는 남편이 광산에 다니다가 서독에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사기를 당하여 술만 마시고 하니까 시어른께서 여기로 들어가 살아보라고 했다. 남편은 군대 다닐 때 월남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어서 서독에 가려했다. 그때 돈으로 250만원을 사기 당했다. 젊어서도 술은 안마셨는데 사기를 당한 후에 술도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일은 안하고 난폭이 지니, 시어른이 여기를 사왔다고, 여기에 들어가서 3년만 살아봐라 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태백에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10년쯤 살면서 약초 등 농사지었다. 여기서 돈 되는 게 없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태백 탄광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중,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니까 돈이 필요했다. 아이들 공부 끝나고 다시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 살다가, 태백 너머 살다가, 안산 살다가, 다시 여기로 들어왔다. 지금은 태백 칠암에 살고 있다. 칠암으로 나간 이유는 집 앞의 나무다리가 태풍 루사 때 떠내려갔는데, 그때 나는 아파서 수원 아주대병원에 있었고 여기에 남편이 혼자 있으니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당장 마을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가게 되었다. 여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관리가 안 되어 지금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며 관리하고 있다. 여기 살던 사람이 나간 후에는 아침에 와서 3~4시간 정도 일하고 다시 칠암 집으로 간다.’ - 김경란 (1948년생)

‘우리 집안은 피난민으로, 할아버지가 양구에서 내려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다. 나는 1971년생이고, 형제는 5명(남 2명, 여 3명)이다. 부모님께서 여기서 농사지어서 기르셨다. 고등학교까지 마을에서 다녔고, 고등학교 후에 밖에 나가 살다가 2015년에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 마을로 다시 들어온 이유는 몸이 안 좋아서다. 몸이 좋았다면 안 들어왔다. 여기 들어와서 몸은 많이 좋아졌다.’ - 김찬영 (1971년생)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3살 때 마을로 들어왔다. 백천에 외삼촌이 살고 계셨다. 외삼촌이 여기로 들어온 이유는 모른다. 외삼촌으로부터 마을에 대해 들은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 1982년 마을을 떠났다. 독가촌을 철거한다는 국가 정책 때문이다. 우리집이 가장 늦게 나왔고 다들 그전에 떠났다. 우리집은 차단기 있는 곳에서 다리 두 개 있는 곳, 거기가 집터였다. 우리 땅은 아니었다. 5남매였는데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생계를 이어갔다. 겨우 먹고 살았다. 공부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 유창일 (1961년생)



사진. 유창일



사진. 이석천, 부부

‘내가 이곳으로 들어온 이유는 아버지께서 땅을 사놓은 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다. 농막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부탁하니 안 되었다. 군대 다녀오니 아버지께서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취직 될 때까지 여기 와서 지키라고 해 들어오게 되었다. 그때 들어와서 못나갔다. 혼자 들어왔다. 여기 들어와 중매로 만나 영주사람 아내와 결혼했다.’ - 이석천 (1948년생)



사진. 이석천



사진. 무궁 스님

3) 마을조직

백천마을은 봉화군 석포면 대현2리에 속한다. 백천마을 주민 중 이석천은 2016년까지 대현2리 이장을 했으며, 김사준은 2017년 현재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사진. 대현2리 열목어 서식지 표지석



사진. 대현2리 마을안에 남아있는 샘터



사진. 대현2리 마을회관



사진. 한때 번화했던 대현2리

‘나는 노인회장이다. 대현2리 노인회장이다. 노인회장은 3년 전부터 하고 있고 노인회장 임기는 4년으로 2017년까지다. 배운 게 없으니 뭘 하려해도 힘들다.’ - 김사준 (1933년생)

‘이장은 3년 동안 했다. 이장을 하기 전에도 단체 회장 등을 하면서 마을 일을 많이 했다. 마을에 사업을 끌어오는 일은 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수월했다. 이장 시작하던 해에 위암 수술을 했다. 위를 반이나 잘라냈다. 3년 마치고, 힘들어 젊은 사람에게 넘겼다.’ - 이석천 (1948년생)

2. 생활문화환경

1) 생활환경

① 전기. 상하수도

백천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84년이다. 각 가정에서 먹는 물은 백천계곡의 물을 각각 끌어다 먹는다. 백천마을은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하수도 받을 경우하여 백천계곡으로 흘러간다. 주민들은 생활하수의 양이 많지 않고 받을 경우하니 백천계곡을 오염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백천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84년이다. 1983년에 내가 경북 도지사에게 가서 직접 청원을 했고, 도지사가 영림서에 얘기해서 가능하게 됐다. 당시 내가 이쪽 반장이었다.’ - 김사준 (193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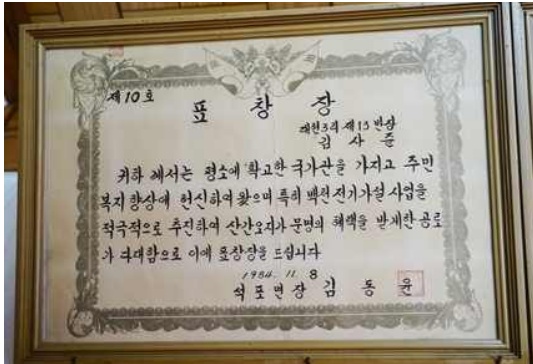


사진. 백천전기가설 추진으로 받은 표창장(김사준님)



사진. 현불사 앞을 지나 백천마을로 들어오는 전기줄

‘물은 계곡, 골짜기에 있는 물을 먹는다. 마을 상수도도 없고 집집마다 각자 알아서 먹는다. 노인회장님 집 옆에 있는 건물은 안동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관측기다.’ - 김찬영 (1971년생)

‘먹는 물은 계곡에서 끌어먹는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먹는다. 백천마을은 오폐수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 수세식 화장실 생기면 정화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아직까지는 재래식 화장실을 고집하는데 아이들이 안 오려한다. 아이들이 오면 화장실 때문에 차 태워서 현불사까지 나간다.’ - 이석천 (1948년생)

② 마을 안길

1960년도에 백천마을 안길은 태백산 자락의 나무를 베어가기 위한 도로였다. 백천마을 앞 길은 목탄차가 드나들 정도로 평평하고 폭도 넓으며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나무를 베어가는 일이 끝나자 길은 묵었고, 큰비가 몇 차례 내리자 길은 사라졌다.

목탄차가 드나든 길이 사라진 후 백천마을 주민들은 백천계곡을 건너는 다리도 없어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지금은 승용차가 들어올 수 있는 너비의 마을 안길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백천마을 안길이 시멘트 포장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사진. 백천마을 안길 (강창희 집 앞)



사진. 백천마을 안길 (이석천 집 앞)



사진. 백천마을 안길 (김찬영 집 앞)



사진. 백천마을 안길 (김경란 집 앞)



사진. 백천마을 안길 (김사준 집 앞)



사진. 백천마을 안길이 끝나는 차단기 입구

‘60년대에도 마을 앞 도로가 있었다. 도로는 일제 때 소나무를 베어서 나가던 길이다. 베어진 나무는 목탄차에 실려 나갔다. 이 나무들은 임원항에서 배로 가지고 나갔다. 두 세 아름되는 소나무(적송 춘양목)들이 베어나갔다. 이 도로는 언덕이 없다. 평지처럼 완만하다. 목탄차는 불을 때서 수증기로 가는 차라서 언덕이 있으면 힘이 없어서 못 간다. 이 길은 목탄차가 가기 좋은 길이다. 이곳은 계곡마다 길이 있다. 당시 소나무를 실어나르던 길이다. 해방 후에는 영주에서 철암을 잇는 영암선을 위한 철도 침목(참나무)을 여기서 해가지고 나갔다.’ - 이석천 (1948년생)

‘마을은 많이 달라졌다. 예전엔 길도 없었다. 비오는 날에는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갔다. 학교 갔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학교에서 너희들은 빨리 집에 가라고 보내줬다. 그때는 집이 많았다. 사람도 많이 살았다. 지금은 다들 나갔다. 그때는 도로도 없고, 형편없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그립다.’ - 김경란 (1948년생)

‘우리 집에 다리를 놓은 것은 30년 전이다. 다리 포장은 20년 전에 했다. 전기는 30년 전, 현불사가 들어오면서 마을에도 들어왔다. 대부분 차가 있으니 밖에 나갈 때 차를 타고 나간다. 차가 없는 노인회장은 4바퀴 전동차로 열목어 마을까지 나간다.’ - 이석천 (1948년생)

영암선

총길이 86.4km이다. 8·15해방 이후 한국은 국가자립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산업발전의 기본이 되는 지하자원의 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철도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최초로 영암선이 계획되어, 1949년 4월 공사를 시작해 1950년 2월 영주 - 내성 간 14.1km가 개통되었다가, 6·25전쟁으로 운행이 중단되었다.

1953년 9월 재착공하여 1955년 12월 전구간이 완공되었다. 태백산맥을 가로질러 동서로 건설된 영암선은,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터널과 교량이 많고 구배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971m에 이르는 춘양-현동 간 임기 제1터널과, 길이 698m의 춘양 터널을 비롯해 33개의 터널이 총길이 8,312m에 걸쳐 건설되어 영암선의 1/10이 터널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총길이 2,843m에 이르는 55개의 교량이 놓여졌다. 이로써 철암에서는 철암선과 이어져 동해안의 묵호와 삼척까지 연결되었고, 영주에서는 중앙선과 연결되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동서남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밖에 중석·망간·형석·자철광·몰리브덴·금·구리·아연 등의 지하자원과 삼림자원의 개발이 촉진되어, 동서횡관 산업철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63년 5월 17일 영암선을 비롯해 동해북부선과 철암선을 하나로 통합해 영동선이라 개칭했다. (출처 : 다음백과)

③ 생활권

백천마을은 봉화군에 속하지만 태백시가 생활권이다. 백천마을이 속한 석포리 대현리가 태백시와 경계에 위치해있어 대현리 열목어마을 기준 태백시까지는 30분(23km)이지만 봉화군까지는 50분(50km)이 걸리기 때문이다.

‘병원은 태백으로 간다. 태백까지 30분 걸린다. 영주, 안동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다. 장도 태백으로 간다. 대현이 경북과 강원도의 경계다. 도로로 나가면, 철길이 있다. 강릉에서 영주로 가는 철길인데 그 철길이 도경계다. 대현 사람들이 생활이 불편하여 행정구역을 태백으로 바꾸려 했지만 국회 통과, 대통령 선포 등 어려움이 많아 이뤄지지 않았다.’
- 이석천 (1948년생)

‘밖에 나갈 때는 트럭타고 나간다. 트럭은 여기 들어오면서 장만했다. 아플 때는 태백-장성 병원으로 간다고 들었다. 약국도 태백으로, 봉화보다 태백이 더 가깝다. 생활필수품은 석포면에 농협이 있어, 대충 해결한다. 석포에 목욕탕은 없다. 작은 일은 석포에서, 큰일은 태백으로 나간다. 택배는 들어오긴 하지만 매일 들어오진 않는다. 이틀에 한번씩, 모았다가 보낸다.’ - 강창희 (1963년생)

‘이곳은 교통은 편하다. 차가 없어도 1시간만 나가면 버스를 탈 수 있다. 밖에 나갈 때는 차로 다닌다. 생활필수품은 영주에서 산다. 병원도 영주로 간다. 태백은 물가가 비싸다. 태백이 생활권이긴 하다.’ - 김찬영 (1971년생)

④ 교통

대현에 버스가 들어온 건, 40년 전이다. 대현에는 연화광업소가 있어 버스가 다른 농산촌보다 빨리 들어왔다. 버스가 처음 들어올 당시도 하루 3번씩 다녔다고 한다.

지금 대현에는 봉화에서 태백으로 가는 버스가 대현2리 앞 정류장에 선다. 태백으로 가는 버스는 하루 8회 다니며, 봉화로 가는 버스 중에는 영주, 대전, 안동, 대구 등으로 가는 버스도 있다.



사진. 국도 31호선 상의 백천계곡 방향 안내판



사진. 대현2리에 버스표를 파는 가게



사진. 국도31호선 확포장(태백 동점~봉화 현동) 공사 현장

시외버스 운행 시간표

←방면영주,대구,대전		장성,태백방면→	
07:30	영주,대전	09:50	태백
09:00	봉화,영주,대구	11:20	*
10:50	봉화,안동,대구	12:40	*
12:20	영주,대전	오 후	
오 후		4:05	태백
1:30	영주,대구	4:25	*
3:25	영주,대전	7:05	*
5:50	봉화,안동,대구	9:30	*
7:40	봉화,안동	11:00	*

대현 시외버스 정류소(054)672-6445

사진. 대현2리(봉화 열목어마을) 버스시간표

‘대현에 버스가 들어온 건, 40년쯤 되었다. 대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빨리 들어온 편이다. 내가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버스가 하루 3번 다녔다. 태백으로 나가는 버스였다. 포장도로가 생기면서 경북여객이 들어왔다. 봉화와 태백을 오가는 버스는 30년쯤 되었다. 태백에는 경북사람들이 많이 산다. 버스가 일찍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는 대현초등학교 근처에 아연생산광산(연화광업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 이석천 (1948년생)

⑤ 시장

백천마을 주민들은 대현에 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태백 장성장에 다녔다. 장성장은 아침 식전에 나서면 점심때쯤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장성장은 오미재와 금천재를 넘으면 되는데 왕복 20리 정도 길이다. 당시 주민들은 큰 장을 갈 때면 춘양장으로 다녔다. 춘양장은 백천마을에서 새벽 4~5시에 출발하여도,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7시 정도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큰 장을 볼 때는 태백이나 춘양으로 나가지만 소소하게 필요한 작은 물품은 석포면에 있는 농협을 이용한다.

‘예전에는 큰 장은 춘양으로, 작은 장은 태백 장성으로 다녔다. 드르네라는 마을을 거쳐, 재 하나를 넘으면 장성이다. 이쪽에 있는 재는 오미재이고, 저쪽 재는 뭐라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가고 오고 20리 정도 됐다. 식전에 가면, 쌀 받아와서 낮에 돌아와 밥 해먹었다.’ - 김사준 (1933년생)

‘백천에서 장성 5일장에 가는 길은, 오미재 넘고, 금천재를 넘어서 장을 보러 다녔다. 대현 앞 도로가 활성화되기 전, 버스가 다니기 전, 30년 전에는 장을 보러 장성으로 다녔다. 태백 장성이 생활권이었다. 행정구역은 경북 봉화이지만 태백 장성시장을 이용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고, 차가 있으니 주로 태백에서 장을 보고, 또 춘양에 5일장이 서니 춘양장으로도 많이 간다.’ - 이석천 (1948년생)



그림5. 백천마을과 장성5일장, 춘양장 위치

장성 5일장

‘장성 5일장’은 태백시 장성동에서 매월 4일, 14일, 24일에 열리고 있는 작은 규모의 10일장으로 곡물과 과일을 주로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장날이 10일 간격으로 장이 서기 때문에 10일 장이지만, 매달 일의 자리수가 5인 날마다 장이 열려 5일장이라고 한다. 두 곳의 5일장과 구분 지어 매달 일의 자리수가 4인 날마다 장이 열리고 있다. ‘장성 5일장’은 규모는 작지만 없는 것 없이 다 있어 장구경을 하기에 좋다.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이나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 등이 많으며, 이외에도 채소와 생선, 과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현지 주민들을 비롯해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장 중의 하나이다. 장성중앙시장 입구부터 일자로 길게 배열되어 5일장 구경뿐만 아니라 중앙시장 구경하기에도 좋다. (출처 : 강원도청)



사진. 장성장 (출처 : 강원도청)



사진. 장성장 (출처 : 강원도청)

2) 문화환경

① 학교

백천마을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대현초등학교(전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 석포중학교를 나온 후 고등학교는 태백, 영주, 대구 등 먼 외지로 나갔다. 대현초등학교는 연화광업소가 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에는 학생 수가 700명이나 되었다.

백천마을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기, 학교까지 걸어 다녔으며 마을길이 좋지 못해 비나 눈이 오면 학교에 갈 수 없었다. 대현초등학교는 1999년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가 되어 석포초등학교에 편입되었다가 폐교되었다.

지금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는 봉화열목어마을⁸⁾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 교적비



사진. 공덕비와 교적비

8) 봉화열목어마을은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가 폐교되어 봉화군에서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2013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조성하였다. 식당 포함 교사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방 9개와 세미나실, 탁구장, 바비큐장, 야외캠핑장, 운동장 등을 갖춘 숙박 연수시설을 조성하고 공모를 통해 봉화열목어마을이란 명칭을 선정하였다.



사진. 석포초교 대현분교 터의 책읽는 소녀상



사진. 열목어마을 전경



사진. 열목어마을 전경



사진. 열목어마을 안 자전거대여부스



사진. 열목어마을 입구

‘이 동네 아이들은 초등학교는 대현초등학교에, 중학교부터는 석포로 나가서 하숙, 자취했다. 아이들은 대현까지 걸어 다녔다. 차 다니는 길은 산관용으로 일제 때부터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 길은 다 떠내려가서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산을 넘어서,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쪽 산을 넘어 다녔다. 그러니 아이들 학교도 반도 못 다녔다. 비가 많이 와도 못 가고, 눈이 와도 못 갔다. 대현으로 나가는 길에 다리도 하나도 없었다. 비 오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리 놓고 쓰다가 또 큰 비 오면 다리가 떠내려가고, 해마다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 아이들은 대현초등학교 나와, 중학교는 석포에서, 고등학교는 영주, 대구, 울산, 부산 등에서 나왔다. 봉화에도 고등학교가 있으나 어차피 백천을 떠나서 공부해야하니 차라리 멀리 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 김사준 (1933년생)

‘초등학교는 대현초. 중학교는 석포로 나갔다. 동생이 1965년생인데 석포중 1회 졸업생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700명 정도였다. 광업소 때문이었다. 광업소 문 닫으니 사람들이 떠났다.’ - 유창일 (1961년생)

‘대현초등학교, 석포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태백에서 다녔다. 마을에 살면서 태백까지 다녔다. 대현까지 걸어 나가면 태백 나가는 버스가 많았다.’ - 김찬영 (1971년생)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청옥로 1893(대현리)에 있었던 공립 초등학교이다. (출처 : 위키백과)

연혁

1935년 4월 30일 소천공립보통학교 부설 대현간이학교로 개교

1943년 6월 4일 대현국민학교 승격

1996년 3월 1일 대현초등학교로 개칭

1999년 3월 1일 석포초등학교 분교장으로 편입

2011년 3월 1일 석포초등학교 본교로 통폐합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에 대한 2009년 글 : 40년 전에 이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당시는 대현분교장이 아니라 대현국민학교였다고 합니다. 학생 수도 상당히 많아서 학교 운동장은 늘 노는 아이들로 북적였고 수업이 시작될 때만 되면 교실마다 학생들이 짹 들어차 빈 책상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랬던 대현국민학교가 90년대 초, 대현리 연화광업소가 전면 폐업하게 되자 학생 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여 99년도에는 결국 석포초등학교로 편입되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현분교장은 총 학생 수 7명으로 줄어들어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의 교실 수를 보면 7명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치고는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80년대 대현광업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당시 학생 수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교실을 확장하다 보니 학교 건물도 저렇게 크게 되었답니다. (출처 : 다음 카페 - 비단장수 왕서방이야기)



사진.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2009년) 당시 학교 안내판과 전경 (사진출처 : 다음 카페-비단장수왕서방이야기)

② 기타

- 우체통 : 김경란 집 앞에는 우체통이 있다.
- 백천마을 둘레길 : 국립공원 지정 이후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백천마을을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이 만들고 있다.



사진. 우체통 (김경란 집 앞)



사진. 백천마을둘레길 초입

Ⅲ 마을주민의 삶

1. 예전 백천마을 주민들의 생업

백천마을 주민들은 화전을 일구거나, 소를 키우거나, 약초 등을 채취해 먹고 살았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숯 공장을 하거나 벌을 치러 오기도 했다.

화전민들은 부쇠봉에서 백천마을 쪽 골골마다 10가구 이상씩 흩어져 살았다고 한다. 화전은 먹고 사는 것 이상은 되지 못했고, 돈이 되었던 것은 약초 등의 채취와 농사, 소 키우기 등이었다. 약초는 농사지어 놓으면 외지의 약초상들이 들어와 밭으로 사갔다.



그림6. 부쇠봉 아래 골짜기 (칠반메기골, 도투마리골, 상골)



사진. 부쇠봉 아래 골짜기 알림 간판



사진. 조록바위봉 방향 안내 간판

백천계곡에는 한때 70마리 이상의 소가 있었다. 이상준은 당시 키우던 소 중 일 잘 하는 소 한 마리를 울안에서 키웠는데 지금도 소를 키웠던 외양간과 여물통이 울안

에 있다.

백천마을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든 쌀이 귀한 지역이라 쌀로 밥을 해 먹은 것은 채 20년도 안 되었다고 한다. 감자, 보리, 옥수수, 좁쌀 등 산에서 가능한 농사로 연명했고 이도 떨어지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살았다. 김사준은 하루 세끼로 소나무 껍질을 먹었던 기억도 있다고 한다.



사진. 이상준의 외양간



사진. 이상준의 소 먹물통

‘그 집에서 3년을 살면서 10리 산길을 올라가 화전을 일구었다. 태백산 아래 마을 끝에서 무, 배추 농사를 했다. 골짜기에 들어가 3년을 열심히 하면 빗을 갚을 줄 알았는데 몇 천 평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안 되었다. 빗을 갚은 건, 지금 사는 집터에서 당귀, 강활 등 약초 농사를 지으면서다. 지금 사는 집은 5천 평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사지 못하고 그냥 들어와 농사를 지었다. 여기 살던 사람, 그 사람도 빗을 내서 땅을 샀기 때문에 우선 이자만 주고 살았다. 처음 이 땅은 토지가 좋지 않았다. 3년 동안 장비를 들여서 개간을 했다. 소도 여남은 마리를 사서 남 쥐서 늘려 나갔다. 산을 다니며 버섯, 약초해서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켰다. 사람들 사서 밭을 만들 때도 산에 가서 일을 해야 일꾼의 품삯을 줄 수 있었다.

여기는 벼농사는 없다. 쌀밥 3끼 먹고 시집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있다. 산에 있으니 쌀이 귀하다. 이쪽 사람들만이 아니라 쌀농사를 많이 해도 못 먹었다. 쌀을 팔아 돈을 만들어야 하니 쌀을 먹을 수 없었다. 우리는 1년에 두세 번, 명절과 생일날에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것도 보리, 수수와 섞어서 해먹었다. 쌀이 귀하니 감자를 많이 먹었고, 배가 고프면 산에 가서 소나무껍질을 벗겨먹었다. 소나무껍질을 깎아내면 물이 올라와 그 물이 껍질이 되는데, 그걸 벗겨서 먹는 거다. 감자 먹고, 나물 뜯어 삶아먹고, 소나무 껍질 먹고 그러고 살았다. 하루 세끼를 소나무껍질로 먹은 때도 있다.

병술년 흉년 때는 넉넉한 사람들도 맘대로 못 먹었다. 전부 죽을 지경이니 잘 사는 집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남들은 굶어 죽는 판에 양심이 있으니 먹지 못하기도 하고, 다들 그런 시절을 겪었다. 쌀로 밥 해먹은 건, 20년쯤 된다. 감자, 보리, 좁쌀, 옥수수 등을 갈아서 밥해먹었다. 이런 것들은 구하기 쉽고, 여기서 농사도 되니 주된 식량이었다.

소를 키웠다. 이 골짜기에 소가 70마리는 들어갔다. 소가 10마리면 산에 집어넣고, 거기 도 살도록 했다. 그중 일 잘하는 소 한 마리는 골라서 농사짓게 했다. 소 길러서 돈을 만들었다. 우리가 소를 완전히 처분한 건, 한 10년 됐다. 그때 사용한 마구간이 마당에 있다. 마을에 살던 사람들 모두 소를 키웠다. 소 키워서는 아이들 공부도 못시키고, 산에 가서 약초 캐고 약초 농사지어서 가르쳤다. 봄에 돈 빌려서, 가을에 이자까지 없어 주고,

다음에 다시 돈 벌리고, 그렇게 살았다. 약초는 상인들이 들어와서 가져갔다. 여기는 다 약초 농사지었다, 감자와 옥수수 심어서 가을에 햇곡식 먹을 때까지 먹고 살았다. 6천 평 되는 땅에 소똥으로 거름해도 감자 1가마니 심으면 가을에 감자 2가마니를 수확했다. 농사지어서는 답이 안 나왔다. 그러니 집 근처 밭은 묵히고 산에 불을 질러, 땅이 좋아지면 그곳에서 화전을 해서 먹고 살았다. 불을 놔도 아무 문제 안됐다. 탄 재가 푹 싹싹하면 감자, 옥수수를 심었다. 그리고 그 자리 앉아서 살았다. 이 골짜기에서 산판을 7년 했다. 산판은 철도 침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인데, 돈이 되니까 전국 각처의 사람들이 산판을 하러 들어왔다. 나무 하나 깎으면 몇 만원이 되었다.’ - 김사준 (1933년생)

‘배추나 감자, 옥수수는 골고루 조금씩 한다. 예전에도 배추, 감자, 옥수수 등은 판매하지 않았고 약초는 약초상이 와서 가져갔다. 소, 약초가 그나마 돈이 되었다.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였다. 농사도 빚내서 지었다.’ - 김옥자 (1948년생)

‘숯공장에서 그을음 받아서 떡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양봉하는 사람들은 전라도, 공주 등에서 여기까지 별통 실고 왔다. 지금은 안 온다. 못 들어가게 하니 안 오는 거다.’ - 유창일 (1961년생)

‘상골 쪽에 숯공장이 있었다.’ - 김찬영 (1971년생)

‘예전에 태백산에서 약초, 사냥을 많이 했다. 멧돼지도 잡았는데 산림법이 없던 시절이니 죄를 묻지 않았다. 호랑이에 대해서는 듣기는 했다. 이곳은 해발이 높아 논농사는 못한다. 쌀은 사서 먹었다. 쌀이 귀했다. 60년에는 숯 공장, 큰 나무 베어서 함지박 만들어서 팔고, 화전 일구어 먹는 건 해결했다. 사과농사는 8년이 되었다. 전에는 소를 키웠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다른 사람들이 한 두마리 키우던 때 나는 40마리나 키웠다. 그런데 소 값이 떨어져서 빚을 많이 졌다. 88 올림픽 때 소 값이 좀 올라 키우던 소를 다 팔았는데 그 후로 소 값이 내릴 적은 없었다. 그때 안 팔았으면 갑부가 되었을 것이다. 마을 위쪽의 화전하던 계곡, 올라가다 왼쪽편 물웅덩이가 있는 곳에서 소를 키웠다. 소들은 여름에는 거기서 살았고, 가을이면 데리고 내려왔다. 그곳에서 소를 키울 때 소들이 자꾸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갔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소는 소금이 부족하면 탈출한다고 한다.’ - 이석천 (1948년생)

2. 지금 백천마을 주민들의 생업

지금 백천마을 주민들은 사과농사, 한봉 등을 한다. 백천마을에서 실질적인 살림을 하는 4가구 중 이석천은 사과농사를, 김찬영은 한봉을 하고 있다. 김찬영과 유창일은 사과농사를 준비 중이며, 김사준은 옥수수, 감자 등을 농사짓지만 가족들이 먹을

정도이며 판매는 하지 않는다.

백천마을은 백천계곡, 태백산 등을 걸으러 오는 방문객들도 있으나 채래식 화장실 때문에 민박을 하긴 힘들다고 한다. 주민들은 여건만 되면 민박을 할 생각이다.



사진. 강창희 사과나무밭



사진. 강창희 사과나무밭



사진. 이석천 사과나무밭



사진. 김찬영 사과나무밭



사진. 백천마을 사과나무꽃 (2017.05.13.)



사진. 백천마을 이석천 집 사과 (2017.08.18.)



사진. 백천마을 이석천 집 사과 (2017.10.23.)



사진. 이석천 사과나무밭 전경 (2017.04.08.)



사진. 열목어마을 입구 사과밭에서 일하는 강창희 (2017.10.24.)



사진. 열목어마을 입구 사과밭에서 일하는 김찬형 (왼쪽, 2017.10.24.)

‘소를 판 후에는 고랭지 채소농사를 지었고 지금 하고 있는 사과농사는 봉화군 과수원 보조 사업에 참여하면서다. 과수원 보조사업에는 나 말고도 12가구가 참여했다. 사과작목반 회원들끼리 도와가며 일을 한다. 가지치기는 겨울에 한다. 올해는 겨울에 일을 못해 지금(4월 중순) 하고 있다. 사과농사는 1만평 정도 한다. 사과나무는 심은 지 3년 후부터 열매를 딸 수 있지만 7년이 지나야 이익이 난다. 작년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요즘은 겨울에도 과수를 하니깐 바쁘다. 월동준비도 하고, 전지작업도 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할 일이 많다. 사과농사는 4계절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즙도 만들어 판매한다. 즙은 밖에서 해온다. 즙이 투명하고 맑다. 사과즙이 잘못되면 텁텁한데 그 이유는 사과가 병들고, 덜 숙성된 걸로 하면 그렇다. 이런 즙은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즙에 설탕 등 첨가물이 전혀 없다.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간다. 사과 즙 1박스(100개)에 택배비 포함하여 55천원 받는다. 제작은 봉화 나가면 즙내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판매는 하지만 장사 속으로는 안한다. 주로 아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사람들에게만 판매한다.

과수원 농사는 사람 사서 한다. 꽃 따는 거는 약품처리를 한다. 지저분하고 잘 안 될 거는 떨어뜨리고 좋은 건 남도록 한다. 꽃은 안 따도 된다. 알맹이가 생기면 알맹이를 떨어뜨리는 약이 있다. 그걸 뿌리면 2/3가 떨어진다. 사람이 할 일은 그걸 다시 한번 거리 맞춰서 따면 된다. 가을에 사과밭 콩쿠르 하고 싶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나무를 분양할 계획이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관리해주는 대신 10만원을 받을 생각이다. 꽃 딸 때, 열매 숙아줄 때, 그리고 수확할 때 오면 된다. 일반적으로 15만원 정도인데 10만원만 받을 계획이다. 만약 천재지변으로 사과 수확이 안 좋아도 한 상자는 무조건 보낼 계

획이다.’ - 이석천 (1948년생)

‘11월에 들어와 측량하고 올봄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전에는 배추를 심었던 것 같다. 생계는 사과 판매로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3~4년 후면 사과가 열린다고 한다. 사과밭은 1400~1500평 정도 된다. 사과나무는 동생들과 함께 심었다. 사과농사를 선택한 것은 배추는 생활이 힘들지만 사과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과는 예전에 키우는 걸 봤다. 약 치는 것도 배웠다. - 강창희 (1963년생)

‘집 앞 사과밭은 내가 짓는 거다. 산에 다니면서 약초, 버섯, 꿀 등을 한다. 사과는 작년에 심었다. 버섯, 약초, 꿀로는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건 벅차다. 짐사람도 일을 한다. 여기에 계속 살 생각이다. 아내도 들어올 것이다. 내 땅은 1500평이다. 농사지어서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산에 올라간다. 산은 나만 부지런하면 살 수 있다. 태백산엔 약초가 많지 않다. 소백산은 삼이 있는데 여기는 삼도 없다. 버섯도 숲이 뿔뿔해서 많지 않다. 외지에서 온 분들은 화장실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민박은 여건만 되면 하려한다. 화장실 때문에 민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 김찬영 (1971년생)

‘생활은 자식들이 일부 용돈 주고,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등으로 한다. 나도 노인들 돌보며 돈을 벌고 있다. 요즘 세상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살 수 있다. 아이들 키우며 사느라 안하는 일없이 다 하며 살았다. 우리집은 민박을 할 수도 있다. 누가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다. 화장실도 수세식이다. 이불도 있고, 당장도 사용 가능하다. 방은 2개와 주방, 화장실이 모두 집안에 있다.’ - 김경란 (1948년생)



사진. 김사준 부부 옥수수 등 수확



사진. 김사준 집 앞에서 자라는 고랭지 배추 (외부인이 와서 농사짓고 있음)



사진. 강창희 가을걷이



사진. 강창희 가을걷이



사진. 김경란 텃밭



사진. 햇볕에 마르고 있는 고추와 옥수수

3. 전통지식

1) 한봉

한봉은 토종별을 통해 꿀을 생산하는 것이다. 백천마을에 한봉을 하는 집은 김찬영, 김사준인데 이중 김찬영은 한봉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김찬영은 아버지로부터 한봉을 배웠다고 한다. 한봉은 4월에 설치하며 10월 상강 무렵에 딴다. 한봉을 설치할 때는 특별한 의식은 없으며 꿀을 딴 후 첫 꿀은 산신에게 올린다. 산이 있어 꿀을 딸 수 있었으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봉은 해마다 가격이 다르다. 보통 1병에 35만 ~50만원을 받는다. 한봉은 벌들이 많이 죽어 소득이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산촌의 고소득 농사 중의 하나이다.



사진. 산자락에 놓인 한봉통



사진. 산자락에 놓인 한봉통



사진. 산자락에 놓인 한봉통



사진. 집 주변에 놓인 한봉통



사진. 한봉통에서 꿀과 밀랍을 꺼내는 모습



사진. 한봉꿀 채취 장면 (김찬영)



사진. 한봉통에서 나온 밀랍



사진. 한봉통에서 채취한 꿀



사진. 한봉꿀 채취 칼



사진. 한봉꿀을 채취한 후 한봉통

‘토종꿀은 산에 갖다 놓으면 벌들이 들어오는데 벌들이 많이 죽어 요즘은 잘 안 들어온다. 꿀은 봄에 놓았다가 여름에 가져온다. 요즘은 도독이 많아 5월이 되면 벌을 집으로 가져온다. 꿀은 6월~7월에 생산된다. 양봉과 비슷한 습성이 있지만 양봉보다 토종벌이 더 부지런하다. 등치는 적지만 더 열심히 일한다. 꿀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한다. 조선 사람들과 비슷한 습성이 있다.

한봉은 4월 중순에 설치한다. 백천계곡으로 올라가다가 보이는 곳에도 있다. 한봉은 11월 상강 무렵에 판다. 오늘, 12시에 따려고 했으나 벌이 덜 빠져서 시간을 늦춘 거다. 소쿠리에 담아서 따뜻한 곳에 놔두면 꿀이 내려온다. 꿀이 숙성되면 수분이 15% 정도 나온다. 이 상태에서 내려 먹는다. 더 이상 숙성시킬 필요는 없다. 가공은 안 한다. 한봉꿀은 수분이 거의 없고, 끈적끈적 하다. 벌들은 지금, 다른 통에 있다.

토종벌도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배웠다. 토종벌로는 1년에 30대 정도 하는데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 많이 안 팔렸다. 토종꿀은 가격이 없다. 35만원~50만원 정도 한다. 벌꿀은 그 해에 안 팔려도 놔둘 수 있다. 아는 지인들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토종벌꿀은 귀하지만 1년에 10명씩 먹는 사람들도 있다. 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복용하면 감기에 도 안 걸린다. 나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감기에 한번도 안 걸렸다. 생꿀로 펴서 먹는다. 들어오기 전에는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여기 들어와서는 안 걸렸다.

올해는 예전보다 더 못하다.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다. 올해는 한말도 안 된다. 한말은 10되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안 좋다. 예전에는 2리터짜리 7병, 7말 정도를 땀다. 꿀 값은 그때그때 다르다. 한봉은 화분 채취는 못한다. 양봉은 인위적으로 화분을 준다. 한봉은 벌통마다 맛이 다르다.

꿀을 딸 때, 특별한 행사는 처음 딸 꿀을 따서 빈그릇에 담아 산신께 올린다. 감사인사를 하는 거다. 한봉을 자리에 놓을 때는 안 한다. 꿀이 안 들어있는 건 밀랍을 만든다. 밀랍은 다음 해에 벌통에 칠한다.’ - 김찬영 (1971년생)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1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2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3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4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5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6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7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8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9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10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11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12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13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14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15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16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17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18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19



사진. 한봉꿀 재취 과정 20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21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22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23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24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25



사진. 한봉골 재취 과정 26

2) 옛물술

옛물술은 옥수수 술의 다른 이름이다. 옛물술은 이 지역(봉화지역)의 전통술이다. 옛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해서 옛물술이라고 한다. 백천마을을 포함한 봉화지역은 옥수수가 많이 생산된다. 이 지역은 쌀이 귀하고 옥수수가 많이 나니 옥수수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옛물술, 옥수수묵, 옥수수 쌀 등이다. 옛물술을 담그는 방법은 각 집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옥수수를 갈아 물을 부어

끓인 후 윗물만 받아 엿기름을 넣어 삭힌 후 다시 끓인다. 엿기름을 넣고 삭힌 물은 끓여서 조리하는 것이 다른 술을 만드는 방법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조리된 물에 밥과 누룩을 넣어 놔두면 노란색으로 옥수수 술이 된다.

옥수수 술은 다른 술에 비해 술을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보관이 용이하여 1년을 놔둬도 괜찮다고 한다.



사진. 옥수수 밭(김사준 밭)



사진. 옥수수(김사준 밭)

‘옥수수 술은 엿물술이라고도 한다. 이 지역(봉화지역)의 전통술이다. 옥수수가 많이 나니 만들어먹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술은 10일 안에 먹어야 한다. 그 이상 놔두면 맛이 변질된다. 엿물술은 1년을 놔둬도 괜찮다.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다. 공이 많이 든다. 옥수수를 말려서 갈아서 옥수수액을 내어 만든다. 햇옥수수로도 가능하다. 가마솥에 옥수수액을 내서 졸이는 과정이 오래될수록 보관이 용이하다. 옥수수를 갈아서 만들어서 일반 술처럼 삭혀서, 졸이는 거다. 많이 끓일수록 술이 오래간다. 남편 환갑 때 마지막으로 했다. 20년 전이다. 만드는데 힘들어서 지금은 안 한다. 요즘은 좋은 술도 많으니 구태여 할 필요도 없다. 엿물술은 옥수수 가루가 있으면 되니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옥수수로는 올챙이묵을 만들어 먹었다. 올챙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올챙이묵이라 했다. 방앗간에 가면 옥수수를 쌀 모양으로 만들어줬다. 옥수수를 맷돌에 갈아 밥으로 해먹었는데, 금천 방앗간에 가면 쌀 모양으로 만들어줘서 그것으로 밥을 해먹었다. 그때 다녔던 금천 방앗간은 없어진 것 같다.’ - 김옥자 (1941년생)

‘내가 여기 와서 살면 엿물술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 여기서 살기가 힘들다. 남편이 시각장애인이다. 나도 몸이 안 좋으니,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야하는데 남편이 앞을 못 보니 가까이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심장판막증까지 와서 병원 가까이 있어야 한다. 남편은 녹내장으로 실명하게 됐다. 30년 가까이 진전되다가 실명했다.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지면서, 실명하게 된다.

여기서 살기는 어렵고, 그래도 여기가 좋아 왔다갔다 다닌다. 엿물술 만드는 거는 시어머니께 배웠다. 시어머니는 평천 분이셨다. 엿물술은 시어머니 따라서 함께 했다. 여기 들어와서도 했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은 태백에서 아는 사람이 남편 환갑에 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해주고 안산으로 갔다. 그랬더니 술이 잘됐다고 안산에 있는데 전화가 왔다. 15년 전 일이다. 2000년 초반이다.

옥수수 술은 옥수수를 물에 담가 불려서 촉을 내야한다. 싹을 틔우는 거다. 싹이 트면 말려서, 술을 할 때 멧돌에 갈아서 물을 넣고 끓인다. 옥수수 물이 끓으면 엿기름도 넣고 같이 끓인 후 물을 짜서 조린다. 엿 하는 식으로 한다 해서 엿물술이라 한다. 조린 후 식혀서 물을 따라 놓고, 밥과 누룩을 해서 자루에 넣어서 단지에 달아놓는다. 그러면 위에 물이 노랗게 맑게 나온다. 그냥 술은 4~5일 만에 되지만 엿물술은 10일 이상 걸린다. 진짜 맛있다. 남편 생일이 동짓달인데 술을 해볼까했더니 남편이 술을 안 좋아하니 하지 말라고 한다. 아이들은 해보라고 한다. 술은 독하지는 않는다. 계속 먹게 된다. 그래서 취한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독하다.’ - 김경란 (1948년생)

옥수수술 (출처 : 농촌진흥청 전통향토음식DB)

- 식재료 : 찰옥수수 8kg, 엿기름 4kg, 누룩 2kg, 고두밥 4kg, 물 적량
- 조리방법
 1. 찰옥수수를 거피해서 여름에는 5-6시간, 겨울에는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불린다.
 2. 물에 불린 것을 다시 곱게 간다.
 3. 술에 찰옥수수 양의 3배의 물을 붓고, 물이 끓으면 1을 섞으면서 저어 준 후 식힌다.
 4. 40℃ 정도로 식으면 술에 붓고 엿기름 물을 부어 걸쭉하게 만든 후 10시간 정도 삭힌다.
 5. 베보자기로 짜서 다시 감주 정도의 농도로 처음 양의 1/4분량이 될 때까지 조린다.
 6. 졸인 후 식으면 누룩과 고두밥을 함께 넣는다.
 7. 5~6일이 지난 후 먹는다.

4. 민속신앙

1) 공동체신앙 (산신제)

백천마을은 가구 수가 많지 않아 마을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동행사는 산신제 밖에 없다. 산신제도 마을공동행사라고는 하나 김사준 부부에 의해 이어져오고 있다고 보여 진다.

백천마을 산신제에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으며, 예전에는 태백 금천에 사는 학자에게 날을 받아 지냈다고 한다. 김사준이 백천마을로 들어와 산신제를 주관하면서는 음력 정월 14일로 고정해서 지낸다.

산신제 음식은 일반 제사 음식과 비슷하여 떡, 부침개, 나물, 과일과 뽕(밥)을 올린다. 산신제에 올리는 떡에는 소금을 넣지 않는 특징이 있다.

‘마을사람이 함께 하는 행사는 당집 제사 말고는 없다. 당집 제사는 내가 백천으로 들어 오기 전부터 했다고 들었다. 당집은 내가 한번 수리했다. 제물은 떡, 떡은 소금을 안 넣는다. 예전에는 정월의 좋은 날을 받아서 했다. 금천(태백) 사는 사람이 날을 잡아줬는데 학자였다. 음력 정월 14일에 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제물 준비 되는대로 한다. 원래는 9시 후, 신이 활동할 때 해야 하는데 혼자 제사를 지내니까 춥고 어둡고 시간도 걸리니 일찍 할 수밖에 없다. 당제를 정월 14일에 지내게 된 것은 전에 살던 마을에서도 마을제사를 정월 14일로 고정해서 지내자고 했었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내가 주관해서 제를 지냈다. 음식은 아내가 했는데 예전에는 떡을 한말은 했고, 20집 정도가 함께 지냈다.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믿음이란 게 중요하다. 교회, 절에 다니는 마음과 같다. 믿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는 거다. 믿어서 나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믿어서 도와주지 않지만 정신에 중심을 잡는 것이다. 중심이 없으면 산도, 바람도, 나무도 위협을 준다. 마음이 흔들린다. 산에 갈 때도 태백산 산신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밤에 산에 갈 때도 신령이 밝혀준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다. 주문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 산돼지, 호랑이가 위협을 줘도 내가 잘못된 게 없으니 신령이 나를 도와주고 살피준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밤에 산속 바위 밑에서 자도 아무 일이 없다.’ - 김사준 (1933년생)

‘당산제 음식은 떡, 부침개, 나물과 뽕(밥) 짓는다. 별 것 안 한다. 과일 몇 가지 올리고. 내가 음식을 장만한 건, 20년쯤 되었다. 성심껏 조금하는 거다.’ - 김옥자 (1941년생)

‘우리 마을은 가구 수가 많지도 않지만 함께 뭘 하지도 않는다. 연배 차가 많기 때문이다. 당집에서 제를 지낸 후 나무에서 제를 지낸다. 음력 대보름 전날(음력 1. 14일), 손 없는 날엔 일찍, 손 있는 날엔 자정쯤에 지낸다. 산신제라고 봐야 한다. 산에서 벌어먹고 사니 산신령을 모시는 거다. 오래 전부터 지냈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6~7명이 참여했다. 지금은 노인회장님과 나만 참여했다. 다른 분들은 여러 이유로 참석을 안 한다. 이장님은 절에 다닌다고, 새로 들어온 분은 내년부터 참여해 보겠다고, 나무다리집도 들어온 지 얼마 안됐다.’ - 김찬영 (1971년생)

2) 가정신앙

김사준은 집안에 조상할머니를 모셔두고 있다. 집안의 오랜 전통으로 이라고 한다.



사진. 김사준 집안에 모신 조상할머니



사진. 조상할머니를 모신 김사준 방 모습

‘집안에 할머니를 모셔놓은 거는 좋다는 말이 있어서다. 조상할머니다.’ - 김사준 (1933년생)

5. 음식생활

예전 백천마을 주민들은 쌀이 귀하여 쌀밥 대신 옥수수밥을 해먹었다. 옥수수를 그대로 밥으로 하면 껍질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옥수수 껍질을 까서 옥수수밥을 해먹었다. 옥수수 껍질을 까서 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방앗간이 금천에 있었다.

옥수수로는 묵도 해먹었는데 옥수수묵은 올챙이처럼 생겼다 해서 올챙이묵이라고도 했다.

‘옥수수는 올챙이묵을 만들어 먹었다. 올챙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올챙이묵이라 했다. 방앗간에 가면 옥수수를 쌀 모양으로 만들어줬다. 옥수수를 맷돌에 갈아 밥으로 해먹었는데, 금천 방앗간에 가면 쌀 모양으로 만들어줘서 그것으로 밥을 해먹었다. 그때 다녔던 금천 방앗간은 없어진 것 같다.’ - 김옥자 (1941년생)

옥수수묵(올챙이묵)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만들어놓은 모양이 올챙이 같다 하여 올챙이묵이라 하며, 옥수수묵이라고도 한다. 옥수수는 강원도의 특산품의 하나로 찰기가 많고 알이 굵고 크기로 유명하며 이용법이 다양하다. 올챙이묵도 그 중의 하나로 강원도지방의 향토음식이다. 만드는 법은 덜 여문 옥수수를 골라 알알이 따서 멧돌에 곱게 간 다음 갈아놓은 옥수수에 물을 부어가면서 고운 체에 받쳐서 가라앉혀 앙금(옥수수녹말)을 얻는다.

이 때 옷물을 따라버리고 앙금에 새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된죽을 쑤다. 그릇에 냉수를 떠넣고 구멍 뚫린 바가지에 죽을 붓고 누르면 올챙이 모양으로 생긴 옥수수묵이 냉수 속으로 떨어진다.

떨어진 올챙이묵을 건져내어 그릇에 담고 식성대로 양념장을 섞어서 먹으면 매끈하고 시원하며 맛이 구수하여 여름철의 별미음식으로 매우 좋다.

옥수수묵 (출처 : 농촌진흥청 전통향토음식DB)

- 식재료 : 옥수수 알갱이 3kg, 애호박 100g(1/4개), 송이버섯 100g, 물 9L(45컵)
- 부재료 : <양념장> 간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참기름 1/2큰술, 통깨 약간
- 조리방법
 1. 옥수수 알갱이에 물을 붓고 멧돌이나 분쇄기에 갈아서 껍질은 걸러 내고 앙금(전분)은 가라앉힌다.
 2. 1을 냄비에 넣고 기포가 생길 때까지 저으면서 끓인다.
 3. 주걱으로 떨어뜨려서 주르륵 흐르는 정도의 농도로 끓인 후 뜸을 들인다.
 4. 식기 전에 올챙이묵 틀에 부어서 찬물에 행군 후 건진다.
 5. 양념장을 곁들인다.
- 참고사항 : 바가지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끓은 묵을 부어서 주걱으로 살살 문지르면 올챙이 같은 묵이 되므로 올챙이묵이라고도 한다. 옥수수묵에 애호박과 송이버섯을 채 썰어 곱명으로 올리기도 한다.

6. 주생활

1) 옛집의 기억

① 이석천의 옛집

이석천이 어릴 때 지금 사는 집 마당에 집이 한 채 있었다. 그 집의 구조는 호랑이 등 산에 사는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집안에서 문틀의 홈에 판자를 끼워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집은 집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거실이 넓어 타작 등의 농사일도 집안에서 했다. 또한 사람과 소가 함께 사는 구조로 만들어 밖에 있던 소는 밤이면 집안에 들어와 잠을 잤다.

‘지금 집 앞 마당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나도 그 집에서 살았다. 당시에도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다. 그 집의 구조가 특이했다. 미닫이 문 안쪽에 흙을 파서 판자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했다. 어른들 말로는 문을 치고 호랑이가 들어올까 봐 그리 만들었다고 했다. 낮에는 밀어냈다가 밤에는 다시 끼워넣는 구조이다. 태백산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이야기다. 그 집 구조는 모든 걸 집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소도 집안에서 살았다. 방과 방 사이에 마루를 거실처럼 해놨는데, 거실에서 타작 등의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였다. 집 안에서 사람과 소가 함께 사는 구조였다.

밤에는 꼬불이라 하여 코끼리 뿔처럼 생긴 것을 모서리에 놔다. 폐치가 같은 거였다. 아래에 돌로 된 판을 놓고 아궁이처럼 만들어, 연기는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꼬불은 난로 목적이 아니라 송진 같은 것을 채취해서 불을 밝혀 호랑이를 피하려는 거였다.

옛 어른들 말에 호랑이는 그늘만 지면 온다고 했다. 캄캄해야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늘 따라 내려온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하다 그들이 지면 밖에 있는 소도 집안에 몰아넣고 모든 일을 집 안에서 했다. 다른 집들은 그런 구조였으리라 생각한다. 그 집은 비가 새서 부수고 다시 지었다. 아쉬움이 있다. 복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집으로 못이 없던 시절이니 나무로 쉼대를 만들어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했다. 문 두께가 엄청 두꺼웠다.

마당에 있던 집의 형태가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100여 년 전에는 다들 그런 집에 살지 않았을까 싶다. 세월이 흘러 헐어버렸다. 우리집 말고 다른 집은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2중, 3중 겹집은 우리집 밖에 없었다. 그 집은 대패가 없이 도끼로 쪼아서 만든 집이다.’ - 이석천 (1948년생)

② 김사준의 옛집

김사준은 1991년 지금의 자리에 있던 흙집을 부수고 새집을 지었다. 집 옆의 창고의 위치도 그대로다.



사진. 김사준의 옛집 모습



사진. 김사준의 지금 집

2) 지금 살고 있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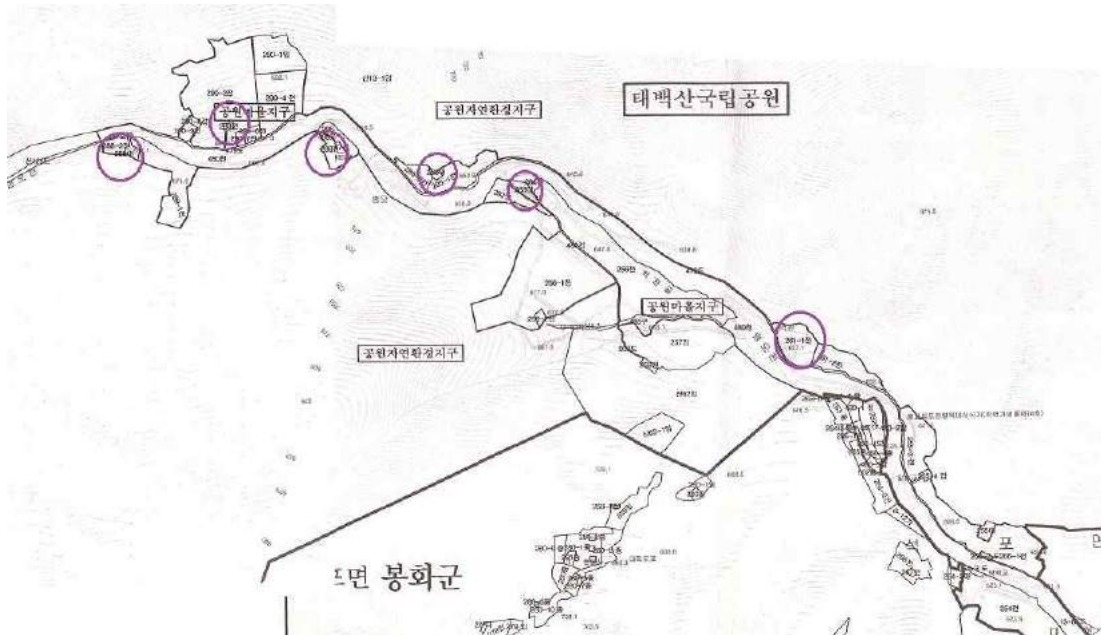


그림7. 백천마을안 건축물(집)의 위치 (보라색 원형 모양)

표8. 백천마을에 있는 집들의 현황 (건축물대장 상, 2017년 8월 현재)

주민 이름	주소	대지 면적 (㎡)	건축 면적 (㎡)	층수	지역	변동일	사용승인일	비고
강창희	대현리 261-1			지상1층				전
이석천 (이봉혁)	대현리 283	668	23.4	지상1층	자연환경 보전지역	1997	1932	대지
김찬영	대현리 285	216	35.3	지상1층	자연환경 보전지역	2013	1954	대지
김경란	대현리 286			지상1층				전
김사준	대현리 289	185	94.8	지상1층	자연환경 보전지역	1991	1991	전
무궁 (조복순)	대현리 288	470	53.8	지상1층	자연환경 보전지역	1960	1960	대지

- 주민이름의 ()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임
- 주소는 대현리 앞에 '경북 봉화군 석포면' 임

① 강창희 집

강창희는 집을 1963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으나 이석천은 그보다는 오래되었다고, 일제 강점기 후 바로 지어졌으며, 영암선 철도 만들 때 침목을 베어간 인부들이 와서 살던 집이라고 한다.

강창희의 집은 화장실만이 아니라 물을 쓸 수 있는 시설이 밖에만 있어 겨울에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한다. 강창희는 살고 있는 집이 흙과 나무로 지어진 했으나 밖을 시멘트로 발라버려서 명품마을을 조성하면서 '투방집'이라 이름 붙인 게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집을 다시 지으려고 건축대장을 확인해보니 1963년에 지은 걸로 기록되어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을 먹는다. 화장실은 푸세식이다. 정화조를 묻으면 그 물이 계곡으로 흘러가서 안 된다고 들었다. 씻는 것도 밖에서 한다. 부엌도 따로 없다. 밥은 방에서 하고, 설거지는 밖에서 한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난방은 나무로 한다. 다른 집들은 연탄과 기름보일러를 냈지만 이집은 아직 아궁이다. 이집을 헐고 다시 짓는다면 씻는 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명품마을로 지정하면서 이 집을 투방집으로 해놨는데 그거 때문에 골치 아프다. 투방집이면 집체에 나무가 보여야하는데 시멘트 밖에 안 보이니 마을에 온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시멘트 안쪽은 나무와 흙이지만 씌어서 시멘트를 발랐다. 도로 옆에 붉은색 막대기, 그 안쪽이 우리 땅이다. 그 너머가 옛날 길. 개천 바로 옆에 길이 있었는데 큰물이 와서 다 쓸려 내려갔다. 개천 길이 없어지니 이쪽으로 길을 낸 것이다. 마을 길 사용에 대한 보상은 못 받았다.’ - 강창희 (1963년생)

‘마을 입구의 투방집은 역사가 얼마 안 된다. 영암성 철도 만들 때 인부들이 들어와서 기거하면서 밥해먹던 집이다. 건축대장에서 1963년에 지어진 집으로 되어 있으나 그보다는 더 된 걸로 알고 있다. 일제시대 후 바로 지었다고 들었다.’ -이석천 (1948년생)



사진. 강창희 집 들어가는 입구



사진. 강창희 집 전경



사진. 강창희 집



사진. 강창희 집 전면



사진. 강창희 집 수도 시설



사진. 강창희 집 화장실

투방집

평안남도에서는 방틀집 [方機家] 또는 목채집 [木叉家], 평안북도 강계 지방에서는 틀목집 [機木家], 강원도 지방에서는 투방집, 울릉도 역시 투방집 또는 투막집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1920년대 이후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귀틀집은 화전경작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적으로는 개마고원과 낭림산맥의 양 사면지역의 산림이 풍부한 북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중부지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남부지역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소백산맥의 일부에서와 울릉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귀틀집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산림지역이 많은 중부 이북의 산간지역에 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현재는 많이 없어졌으나 울릉도·태백산맥·소백산맥 등 강원도 일부지방에 약간 남아 있다.

귀틀집의 평면구성은 방 두 칸과 부엌 한 칸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집, 또는 세 칸에서 부엌의 끝 쪽에 가축의 우리를 달아낸 것 등의 평면형식이 가장 흔하다. 분포지역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소규모에서부터 규모가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귀틀집은 그 벽체의 구성을 귀틀방식으로 짠 것이 같을 뿐이지 평면 자체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붕의 형태도 까치구멍집·우진각·맞배지붕 등의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귀틀집은 풍부한 목재와 정교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산간지대의 화전민들 사이에 오늘날까지 옛 모습 그대로 전하여지고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② 이석천 집

이석천의 집은 건축물대장상에는 1932년에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석천은 화장실은 밖에 있지만, 욕실, 주방 등이 집안에 있어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이 집은 50년 정도 됐다. 집의 뼈대는 나무와 흙으로 초가삼간집이다. 이 집을 헐고 다시 지을 생각은 없다.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만 불편하다. 수도, 욕실 다 집안에 있다. 난방은 연탄으로 한다. 기름도 함께 쓴다.’ - 이석천 (1948년생)



사진. 이석천 집 입구



사진. 이석천 집 안에 있는 정자



사진. 사과나무밭에서 바라본 이석천 집



사진. 이석천 집 모습



사진. 이석천 집 대문 안

③ 김찬영 집

김찬영의 옛집은 바위 앞에 있어 방구집이라 불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옛집을 부순 후 위치를 변동하여 지은 집이다. 도면상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해보면 김찬영 집의 위치는 도면과 다름을 알 수 있다(그림7 참조).

‘어릴 때 살던 집이 바위 앞에 있어 우리집을 방구집이라 불렀다. 내가 밖에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기 사셨다. 아버지는 2014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들어왔다.’ – 김찬영 (1971년생)



사진. 김찬영 집 전경



사진. 큰 바위를 뒤에 두고 있는 김찬영 집



사진. 김찬영 집



사진. 김찬영 집 창고



사진. 김찬영 집 화장실



사진. 김찬영 집 장작과 가마솥

④ 김경란 집

김경란의 집은 김사준이 살던 집이다. 김경란은 일상적으로 백천마을에 거주하지 않지만 거의 매일 집에 와서 청소와 텃밭도 관리한다. 김경란의 집엔 부엌,

세면장, 화장실 등이 집 안에 있다.



사진. 김경란 집 입구



사진. 김경란 집 전경



사진. 김경란 집

‘백천으로 들어와 처음 자리 잡은 건 다리건너 집(김경란의 집)자리다. 땅 960평(당시 시가 10만원)을 우선 1만원을 주고 나중에 9만원을 주기로 하고 샀다. 막내 아이가 그 집에서 태어났다. 지금 막내는 40살이 다 되었다.’ - 김사준 (1933년생)

⑤ 김사준 집

김사준은 예전의 흙집을 부수고 1991년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다. 새 집을 지으면서 김사준은 집터 외의 땅은 대지에서 밭으로 변경하였다.

‘이 집은 문화재청에서 허가 받은 집이다. 열목어 보호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집을 짓도록 허가해줬다. 집을 새로 지으면서 별 필요가 없겠다 싶어 집터 외 대지는 모두 밭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 집은 1991년도 지었다.’ - 김사준 (1933년생)

‘지금 사는 집은 30년 넘었다. 그전에는 흙집이었다. 흙집 부수고 그 자리에 지금 집을 지었다.’ - 김옥자 (1941년생)



사진. 김사준 집과 입구 도로



사진. 김사준 집과 창고



사진. 김사준 집 전경



사진. 김사준 집



사진. 김사준 집 창고



사진. 김사준 집 창고 안

⑥ 무궁 스님이 사는 집

무궁 스님이 사는 집은 현불사 소유의 집이다. 그 집은 신도가 구입해서 현불사에 시주했다고 한다.



사진. 무궁 스님 집 전경



사진. 무궁 스님 집



사진. 무궁 스님 집 창고와 화장실



사진. 무궁 스님 집 화장실

IV 마을과 태백산, 태백산국립공원

1. 태백산국립공원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백천마을 주민들은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백천마을은 백천계곡이 1962년 열목어 서식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며 196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태백산자락 아래 백천계곡을 따라 뜨문뜨문 놓인 집들, 대부분의 집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강창희는 물을 사용하는 모든 일을 밖에서 해결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하며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사진. 국립공원 지정 환영 현수막



사진. 부쇠봉 안내표지목



사진. 부쇠봉 정상



사진. 봉화백천계곡 안내표시판

‘백천마을에서 태백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마을 끝에서 부쇠봉으로 가는 길이 있다. 부쇠봉에 오르면 천제단, 문수봉이 보인다. 강원도와 경북의 경계가 천제단에서 문수봉으로 가는 능선이다.

국립공원이 되면서 사과를 북한산성, 도봉산, 정릉 장터에서 팔 수 있었다. 작년에 두 번, 올 해 한 번 모두 3번 올라갔다. 잘 팔린다. 소비자는 맛이 있어야 산다. 청송사과를 으뜸으로 치는데 거기는 해발 300~400m여서 맛과 강도에서 여기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는 고랭지여서 표면이 거칠고, 크기가 작지만 단단하고,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택배주문도 많이 들어온다.

올해 우리는 국립공원사무소에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태백시민들이 워낙 요구가 많은데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다. 국립공원 지정하면서도 마을에서 요구한 것은 등산로 개소, 공원마을지구와 명품마을 지정, 휴게소를 하나 짓기 등을 요구했다. 휴게소는 탐방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마을에서 생산한 나물 같은 것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일반 차가 마을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한다. 열목어 마을에 주차시설을 만들고 모든 차량은 그곳에 주차하고 전기차를 이용해서 탐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운영해보고, 1일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여 합의하면 된다. 탐방하는 사람들의 개인 면적을 확보하여 사람들로 인해 피곤하지 않았으면 한다. 수치상으로 따져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을 제한하는, 예약제를 하는 거다. 환경부장관과 봉화군수가 합의해서 사인도 했다.’ - 이석천 (1948년생)

‘부쇠봉은 강원도와 경북 경계지점이다. 선바위, 음지선바위, 양지선바위 등이 있고, 통시(화장실의 옛이름=병사들이 불일 보는 곳)도 있다. 부쇠봉 가는 길은 있지만 상골은 길 자체가 없다. 예전에는 상골 쪽에서 나물을 많이 했다. 도투마리골, 칠발메기골 등이 있다.’ - 김찬영 (1971년생)

‘우리집으로 들어오는 다리가 예전엔 정말 예뻐는데 지금은 안 예쁘다. 인터넷으로 백천골을 쳤더니 우리 나무다리가 나왔다고 아이가 전화를 했었다. 예전에는 다들 사진 찍고 그랬다.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예전 다리 위에다가 다시 다리를 놓고, 넘어지지 말라고, 안전하게 한다고 와이어 줄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예전보다 예쁘지 않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니 좀 나올 것 같다. 사람들도 더 올 것이다. 주위가 깨끗해지고 더 잘됐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여름,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여기 계곡에는 못 들어가게 하니, 저 아래서 놀다가 여기가 더 시원하니 걸으러 온다. 겨울에는 설경 보러 온다.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도 너무 좋다. 우리집에서 보면 저 너머에 소나무에 눈이 올라앉은 게 너무 좋다.’ - 김경란 (1948년생)



사진. 나무다리의 옛 모습



사진. 나무다리의 지금 모습

‘국립공원 지정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열목어가 사는 것, 마을사람들은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반반인 거 같다. 사람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접근 안 하는 게 제일 보호하는 방법일 것이다. 모든 것에 애정을 갖고 간절해지면 그 속이 보인다.’ - 정호 스님 (1956년생)

2. 명품마을

백천마을 주민들은 명품마을 지정으로 한껏 부풀어 있다. 명품마을을 통해 백천마을이 홍보되면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사과, 한봉꿀 등)이 지금보다는 더 잘 팔릴 것이며,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마을에서 민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백천마을이 명품마을로 지정되며 명품마을 입간판을 세우고, 백천마을의 상징인 열목어를 상징화한 의자를 설치하고, 마을둘레길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사무소는 백천계곡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며 백천마을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사진. 백천명품마을 입구 안내판(4월8일)



사진. 백천명품마을 입구 안내판(5월13일)



사진. 백천명품마을 입구 안내판(8월18일)



사진. 백천명품마을 입구 안내판(10월23일)

‘명품마을도 되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소비자가 보고 주문할 것이다. 마을 둘레길도 만들고 있다. 다른 명품마을을 가보니 너무 상업적이었다. 백천은 내가 위원장이고 우리의 앞으로 계획은 돈 버는데 치중하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집을 짓고 펜션하는 것은 안할 예정이다. 선전을 하기보다는 와서 보고, 경험해보면 사람들간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사과따기 등 틀에 박힌 체험보다는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 꽃은 5월 중순, 사과 따는 건 10월 말부터 한다.

명품마을 지정 후 올해 첫해다.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둘레길을 만드는 중이다. 올해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민박 등 주민소득사업을 계획 중이다. 명품마을사업은 4~5년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명품마을로 인한 이익은 아직 못 느끼고 있다. 둘레길 만드는 게 연말에 완성되니 그 후는 뭐가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다.

열목어 때문에 60년 동안 보전된 것을 앞으로도 잘 보전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오고, 민박 짓고 하면 우리 생활은 나아지겠지만 우리 후손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구 온난화에, 미세먼지에 이제 밖에 나가기도 힘든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 이곳은 사람들을 품어줄 것이다.

이곳이 지금처럼 보전만 잘 되면 사람들이 숨 쉬는 거 걱정 안하고, 트레킹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돈 벌려면 도시로 나가야지 이곳에 살면 안 된다. 섬 명품마을에 가봤는데 도떼기 시장이고, 다들 장사속이다. 주민들끼리도 싸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민박하고, 오는 손님들이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가 많지 않아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도 없다. 대부분 산림청 땅이다. 개발 가능성이 많지 않다. 위원장으로서 일이 많지만 욕심을 부르면 힘든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힘든 줄 모른다. 잔재주, 꿈수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하다.’ - 이석천 (1933년생)

‘명품마을로 지정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편해졌다. 집 비울 때 개, 닭 등을 공단 직원들이 돌봐 준다.’ - 김찬영 (1971년생)

‘나는 명품마을 지정된 후에 들어왔다. 명품마을에 기대하는 건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고 농작물 판로를 뚫어주는 거 등인데 국립공원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 강창희 (1963년생)



사진. 강창희 집(투방집) 안내표시판



사진. 투방집 안내표시판



사진. 이석천 집(사과부자집) 안내표시판



사진. 사과부자집 안내표시판



사진. 김찬영 집(큰바우집) 안내표시판



사진. 큰바우집 안내표시판



사진. 큰바우집 안내표시판



사진. 큰바우집 안내표시판



사진. 김경란 집(나무다리집) 안내표시판



사진. 나무다리집 안내표시판



사진. 나무다리집 안내표시판



사진. 엷집 안내표시판



사진. 엷집 안내표시판



사진. 엷집 안내표시판

2017년 10월 23일에는 백천계곡 가을걷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진. 백천걷기 단체사진



사진. 백천걷기 중 한봉골차 맛보기



사진. 백천걷기 중 나무다리에서 사진촬영



사진. 백천걷기 중 음악회



사진. 백천걷기 중 야외 점심식사



사진. 백천걷기에 참석한 마을주민들

◇ 도움 말씀 주신 분들



- 차량협조, 마을주민 섭외 등 :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병오분소
- 인터뷰 : 백천마을 주민(강창희, 김사준(김옥자), 김찬영, 이석천), 옛 백천마을 주민(김경란, 유창일), 현불사 스님(정호, 무궁)
- 자료 정리와 글 작성 : 윤주옥
- 사진 : 허명구

◇ 참고문헌과 자료

안동 MBC (2016.08.22.)

봉화 여행길잡이, 봉화군

태백산·청옥산 지도 (2007), 월간산

2003년도 전국 자연동물 조사결과 보도자료 (2004.05.), 환경부

봉화군지 (1988), 봉화군

산림청 <http://www.forest.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

사이버 강원관광 <http://www.gangwon.to>

봉화군청 봉화관광 <http://www.bonghwa.go.kr/open.content/tour>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

청옥산자연휴양림 <http://www.huyang.go.kr>

태백산국립공원 <http://taebaek.knps.or.kr>

현불사 <http://www.hyunbulsa.org>

봉화열목어마을 <http://www.bhtown.kr>

한국동굴환경학회 <http://cafe.daum.net/cavenet>

한국학중앙연구원 www.encykorea.aks.ac.kr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다음백과 <http://100.daum.net>

물고기나라의 귀농이야기 <http://cafe.daum.net/mulgoginara>

비단장수 왕서방이야기 <http://blog.daum.net/11757>

영풍광우회 <http://cafe.daum.net/ypkwang>

백천마을주민
구술채록카드

구술채록카드 (태백산국립공원)

지역	경북-봉화-석포
마을	백천마을
번호	1

일시	2017년 2월 12일, 8월 18일, 10월 23일		
구술자	김사준	장소	김사준의 집
사진	허명구	정리	윤주옥
채록자	윤주옥	동행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구술자 정보			
이름	김사준	출생년도	1933년생
직위	대현2리 노인회장	연락처	010-5002-6592

주요 구술내용
<p><생애사></p> <p>나는 춘양에서 태어났고 27살에 결혼했다. 어머니 고향이 춘양이다. 형제는 7남매(3남 4녀) 인데 내가 둘째 아들이다. 누나, 형, 나, 여동생 3명, 그리고 막내가 남동생이다. 둘(누나, 막내동생)은 죽고 5명이 살아있다.</p> <p>먹을 게 없어서 반은 굶으며 살았던 시절이다.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다. 공부하는 건 생각도 못했다. 7살부터 지게 짊어지고 일했다. 군불 때서 살았다. 어릴 때 어느 보살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어머니 따라 산길 50 리를 걸어 만경대까지 갔던 적도 있었다.</p> <p>군대에는 4년 10개월 있었다. 내가 징집 1기다. 나 전에는 전쟁 중이었으니 오다가다 젊은이가 있으면 잡아다가 훈련소에 넣어 입대시켰다. 휴전 후 한꺼번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다들 21, 22살이었다. 나는 21살인 1954년에 군에 갔다. 춘양 살 때였다. 훈련은 눈산에서, 군번은 포항에서 받았고, 군 생활은 영천에서 했다. 김해공병학교에서 8주간 교육을 포함하여, 꼭 1년간 교육받았다. 군사훈련으로 안 받은 게 없다. 지뢰탐지훈련까지 했다.</p> <p>5년 군 생활 후 제대하자마자 결혼했다. 아내는 신사년 뱀띠(1941년생)다. 늦재(넋재)에서 큰 밭을 내 손으로 일구어 9년(29살~38살) 살았다. 대현으로 이사 온 건 38살(1971년) 때이고, 대현에서 5년 살다가 43살(1976년)에 백천으로 들어왔다. 아이들 7명 데리고 들어왔다. 백천에서 1명 더 낳아 슬하에 3남 5녀를 뒀다.</p> <p>춘양에서 늦재로 들어올 때 아무 것도 없이 11식구가 들어왔다. 동생 둘은 출가시키고, 막내동생만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님네 둘, 우리 둘, 막내 동생, 조카 4명, 우</p>

리아이 1명이 모두 한 집에 살았다. 산으로 들어오면 나물이라도 뜯어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3년 동안은 하루도 쉬지 않고 개간해서 밭을 만들었다.

늦재에는 기차나 버스는 없었고 가까이 광산이 있으니까 장짐 실어 나르는 차가 들어왔다. 나무 한 다발을 묶어놓으면 화물장사들이 한 다발에 30원씩 주고 가져갔다. 당시는 영주 시내도 나무를 벨 때다.

늦재에서는 산죽 베어서 지붕 엮고 나무로 대충 만든 집에서 살았다. 처음엔 비가 썩는데 몇 번 지붕을 올리니 비는 새지 않았다. 늦재에서 학교를 보내려면 20리를 가야했다. 공부도 안 되고 아이들만 힘들겠다 싶어서 아이들 학교 다니기 쉬운 곳으로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늦재에서 4년 농사지어서 모은 돈으로 춘양에 나가려다가 돈이 약간 모자라서 한해만 더 돈을 놓고(빌려주고) 농사지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해에 흉년이 저서 빌려준 돈도 못 받게 되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빚을 안 갚고 야반도주 해버렸다. 안 떠난 사람들도 돈이 없는 걸 알고 있고, 또 나중에 갚는다고 하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늦재에서 대현으로 옮길 때는 우리가족(부부와 아이 셋)만 움직였다. 늦재에서 큰집과 3년 살며 화전 일구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후 우리만 대현으로 나온 것이다. 대현에서 5만원 주고 집을 샀다. 당시(1970년대 초) 대현초등학교 학생 수가 700명이나 됐다. 대현에 연화광업소가 있었는데 종업원 수가 3,000명이었던 때도 있었다.

대현으로 와서 5년 농사지어 돈 만들어, 돈 쓸려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까지 합쳐서 받았다. 그때 돈이 많이 늘어났다. 그 돈으로 양계를 시작했다. 200수 정도 되었다. 양계를 정리한 후에는 중화요리집을 시작했다. 요리사를 두고 했다.

중화요리집을 하며 많이 힘들었다. 대현은 광산촌이라 외상도 많았다. 광업소 직원들은 월급

이 적어 하루 일하면 7천원 받았다. 막걸리 한 되, 우동, 짜장 한 그릇에 50원하던 시절이었다. 임금이 적으니까 거지가 많았고 한두 달 일하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 외상으로 먹고, 월급 나오면 갚는다고 하고는 가버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여 중화요리집을 3년 하면서 밀천까지 털어먹었다.

양계에서 번 돈으로 땅을 샀으면 좋았을 걸 중화요리집을 한 게 후회스럽다. 외상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보면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린 상황이었다. 외상 장부는 붙어나고 돈은 점점 없어졌다. 빚을 내서 중화요리집을 해야 하는 판이었다. 중화요리집을 정리하며 빚을 청산하려하니 돈이 모자라서 야반도주 생각도 했지만 빚쟁이 아이들이란 말 듣게 하면 안 된다 싶었다. 그래서 농사지어 빚도 갚고 먹고 살기위해 백천으로 들어왔다.

백천으로 들어와 처음 자리 잡은 건 다리건너 집(김석기님 집)자리다. 땅 960평(당시 시가 10만원)을 우선 1만원을 주고 나중에 9만원을 주기로 하고 샀다. 막내 아이가 그 집에서 태어났다. 지금 막내는 40살이 다 되었다. 백천으로 올라올 때 빚이 백만 원 정도였다. 1970년대 말, 집 한 채가 13만원 하던 시절이었다. 나무다리 집에는 디딜방아가 있었다.

그 집에서 3년을 살면서 10리 산길을 올라가 화전을 일구었다. 태백산 아래 마을 끝에서 무, 배추 농사를 했다. 골짜기에 들어가 3년을 열심히 하면 빚을 갚을 줄 알았는데 몇 천 평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안 되었다.

빚을 갚은 건, 지금 사는 집터에서 당귀, 강활 등 약초 농사를 지으면서다. 지금 사는 집은 5천 평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사지 못하고 그냥 들어와 농사를 지었다. 여기 살던 사

람, 그 사람도 빗을 내서 땅을 샀기 때문에 우선 이자만 주고 살았다. 처음 이 땅은 토지가 좋지 않았다. 3년 동안 장비를 들여서 개간을 했다. 소도 여남은 마리를 사서 남취서 늘려 나갔다.

먹고 살기 힘들니 아이들 공부할 때 학비도 제대로 못 줬다. 산을 다니며 버섯, 약초해서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켰다. 사람들 사서 밭을 만들 때도 산에 가서 일을 해야 일꾼의 품삯을 줄 수 있었다.

아이들은 대현초등학교 나와, 중학교는 석포에서, 고등학교는 영주, 대구, 울산, 부산 등에서 나왔다. 봉화에도 고등학교가 있으나 어차피 백천을 떠나서 공부해야하니 차라리 멀리 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은 서울(첫째), 수원(둘째. 삼성), 울산(막내. 에스케이)에 살고 있다. 농사짓고 사는 아이들은 없다. 딸 아이 하나는 중학교 나와 부산에서 일하면서 고등학교 다녔다. 부산에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고흥 사람이라 고흥으로 가서 살고 있다. 열목어 보호활동과 관련하여 1995년에 신문(매일신문)에 기사화되었다. 군에서 정리해서 신문에 냈다고 들었다. 이 집은 문화재청에서 허가 받은 집이다. 열목어 보호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집을 짓도록 허가해줬다. 집을 새로 지으면서 별 필요가 없겠다 싶어 집터 외 대지는 모두 밭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 집은 1991년도 지었다. 집안에 할머니를 모셔놓은 거는 좋다는 말이 있어서다. 조상할머니다.

여기에는 산돼지, 산양, 노루, 오소리, 너구리가 많다. 호랑이는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가까이 있음을 느낀 건 두 번이었다. 내가 7살 때 춘양 삼촌집에 갔다가 만항골에서 만항재를 넘어 밤 10시경 내려오는데 불 두 개가 땅에 떨어졌다. 서석(조)밭에서 확 소리가 났는데 돌아보니 신작로는 흰한테 킁킁한 게 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뭘지는 모르는데 끔찍도 않고 있다가 우산을 확 펴니까 후다닥 길 아래로 내려갔다.

우리는 호랑이, 범 모두 범이라 부른다. 범은 사람이 오면 피한다. 호랑이는 안 피한다. 또한 호랑이는 괜히 사람을 헤치지 않는다. 15살 때 천제단 넘어 농걸이라는 곳으로 내려오는데 호랑이를 느껴 두 사람이 갔다가 못 들어가고 그냥 내려왔다. 예부터 어른들이 산이 못 오게 하면 가지 말라고 했다. 그날도 앞에 막는 게 있다는 느낌이 있어 그냥 내려왔다.

<마을이야기>

백천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는 모른다. 전해오는 말로는 알 수 있다. 내가 대현으로 왔을 때도 묵은 묘들이 많았다. 100년 이상 묵은 묘는 몇 개월 공고 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된다고 한다.

상백 쪽에만 50집 정도 살았다. 태백산 아래 흩어져 사는 집이 50집이었다는 이야기다. 상백은 화전민들이 살던 곳을 말한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간 것은 70년대 다. 울진삼척사건 후에 다들 나갔다. 그 후에도 화전이 있긴 했지만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

내가 백천에 들어올 때(1976년쯤) 백천에는 14집 정도 살았다. 윗마을(상백)에도 6가구가 있었다. 당시 여기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나갔다. 여기서 농사지어야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불사 자리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하백(현불사 주변), 중백(여기), 상백(질 짓는 곳)이라고도 했고, 윗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이라고도 했다.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구분지어 그렇게 불렀다. 백은 백천을 말한다.

지금 백천에는 6가구가 있는데 가장 오래 산 집이 우리다. 나는 노인회장이다. 대현2리 노인회장이다. 노인회장은 3년전부터 하고 있고 노인회장 임기는 4년으로 2017년까지

다. 배운 게 없으니 뭘 하려해도 힘들다.

마을사람이 함께 하는 행사는 당집 제사 말고는 없다. 음력 정월 14일에 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제물 준비 되는대로 한다. 원래는 9시 후, 신이 활동할 때 해야 하는데 혼자 제사를 지내니까 춥고 어둡고 시간도 걸리니 일찍 할 수밖에 없다.

당집 제사는 내가 백천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했다고 들었다. 당집은 내가 한번 수리했다. 제물은 떡, 떡은 소금을 안 넣는다. 예전에는 정월의 좋은 날을 받아서 했다. 금천(태백) 사는 사람이 날을 잡아줬는데 학자였다.

당제를 정월 14일에 지내게 된 것은 전에 살던 마을에서도 마을제사를 정월 14일로 고정해서 지내자고 했었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내가 주관해서 제를 지냈다. 음식은 아내가 했는데 예전에는 떡을 한말은 했고, 20집 정도가 함께 지냈다.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믿음이란 게 중요하다. 교회, 절에 다니는 마음과 같다. 믿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는 거다. 믿어서 나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믿어서 도와주지 않지만 정신에 중심을 잡는 것이다. 중심이 없으면 산도, 바람도, 나무도 위협을 준다. 마음이 흔들린다. 산에 갈 때도 태백산 산신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밤에 산에 갈 때도 신령이 밝혀준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다. 주문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 산돼지, 호랑이가 위협을 줘도 내가 잘못된 게 없으니 신령이 나를 도와주고 살피준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밤에 산속 바위 밑에서 자도 아무 일이 없다.

백천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84년이다. 내가 1983년 경북 도지사에게 가서 직접 청원을 해서, 도지사가 영림서에 얘기해서 가능하게 됐다. 당시 내가 이쪽 반장이었다.

예전에는 큰 장은 춘양으로, 작은 장은 태백 장성으로 다녔다. 드르네라는 마을을 거쳐, 재 하나를 넘으면 장성이다. 이쪽에 있는 재는 오미재이고, 저쪽 재는 뭐라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가고 오고 20리 정도 됐다. 식전에 가면, 쌀 받아와서 낮에 돌아와 밥 해먹었다.

아이들은 대현까지 걸어 다녔다. 차 다니는 길은 산판용으로 일제 때부터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 길은 다 떠내려가서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산을 넘어서,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쪽 산을 넘어 다녔다. 그러니 아이들 학교도 반도 못 다녔다. 비가 많이 와도 못 가고, 눈이 와도 못 갔다. 대현으로 나가는 길에 다리도 하나도 없었다. 비 오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리 놓고 쓰다가 또 큰 비 오면 다리가 떠내려가고, 해마다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

여기는 벼농사는 없다. 쌀밥 3끼 먹고 시집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있다. 산에 있으니 쌀이 귀하다. 이쪽 사람들만이 아니라 쌀농사를 많이 해도 못 먹었다. 쌀을 팔아 돈을 만들어야 하니 쌀을 먹을 수 없었다. 우리는 1년에 두세 번, 명절과 생일날에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것도 보리, 수수와 섞어서 해먹었다.

쌀이 귀하니 감자를 많이 먹었고, 배가 고프면 산에 가서 소나무껍질을 벗겨먹었다. 소나무껍질을 깎아내면 물이 올라와 그 물이 껍질이 되는데, 그걸 벗겨서 먹는 거다. 감자 먹고, 나물 뜯어 삶아먹고, 소나무껍질 먹고 그러고 살았다. 하루 세끼를 소나무껍질로 먹은 때도 있다.

병술년 흉년 때는 넉넉한 사람들도 맘대로 못 먹었다. 전부 죽을 지경이니 잘 사는 집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남들은 굶어 죽는 판에 양심이 있으니 먹지 못하기도 하고, 다들 그

런 시절을 겪었다.
 쌀로 밥 해먹은 건, 20년쯤 된다. 감자, 보리, 좁쌀, 옥수수 등을 갈아서 밥해먹었다. 이
 런 것들은 구하기 쉽고, 여기서 농사도 되니 주된 식량이었다.

소를 키웠다. 이 골짜기에 소가 70마리는 들어갔다. 소가 10마리면 산에 집어넣고, 거기
 도 살도록 했다. 그중 일 잘하는 소 한 마리는 골라서 농사짓게 했다. 소 길러서 돈을
 만들었다. 우리가 소를 완전히 처분한 건, 한 10년 됐다. 그때 사용한 마구간이 마당에
 있다. 마을에 살던 사람들 모두 소를 키웠다.

이 동네 아이들은 초등학교는 대현초등학교에, 중학교부터는 석포로 나가서 하숙, 자취
 했다. 소 키워서 아이들 공부도 못시키고, 산에 가서 약초 캐고 약초 농사지어서 가르
 쳤다. 봄에 돈 빌려서, 가을에 이자까지 없어 주고, 다음에 다시 돈 빌리고, 그렇게 살았
 다. 약초는 상인들이 들어와서 가져갔다. 여기는 다 약초 농사지었다, 감자와 옥수수 심
 어서 가을에 햇곡식 먹을 때까지 먹고 살았다.

6천 평 되는 땅에 소똥으로 거름해도 감자 1가마니 심으면 가을에 감자 2가마니를 수확
 했다. 농사지어서는 답이 안 나왔다. 그러니 집 근처 밭은 묵히고 산에 불을 질러, 땅이
 좋아지면 그곳에서 화전을 해서 먹고 살았다. 불을 놔도 아무 문제 안됐다. 탄 재가 폭
 신평신평하면 감자, 옥수수를 심었다. 그리고 그 자리 앉아서 살았다.

이 골짜기에서 산판을 7년 했다. 산판은 철도 침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인데, 돈이 되
 니까 전국 각처의 사람들이 산판을 하러 들어왔다. 나무 하나 깎으면 몇 만원이 되었다.

조록바위는 바위들이 조롱조롱, 포도열매 달리듯이 서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병오천은 잘못 된 것이다. 변터골, 현불사골의 이름이다. 그쪽이 병오동이다.
 여기는 산개밭골이다.

<p>관련자료</p>	
<p>기타</p>	

구술채록카드 (태백산국립공원)

지역	경북-봉화-석포
마을	백천마을
번호	2

일시	2017년 8월 28일. 10월 23일		
구술자	김옥자	장소	김사준.김옥자의 집
사진	허명구	정리	윤주옥
채록자	윤주옥	동행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구술자 정보			
이름	김옥자	출생년도	1941년생
직위	김사준의 아내	연락처	010-5002-6592

주요 구술내용
<p><생애사> 백천에 살기는 불편하지만 어디 갈 데가 없으니 여기서 사는 거다. 여기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이제 나이도 많으니 어디 갈 생각은 안한다. 집 주변 밭은 지금 다른 사람이 배추 농사를 한다. 예전에는 약초를 했다. 배추나 감자, 옥수수는 골고루 조금씩 한다. 예전에도 배추, 감자, 옥수수 등은 판매하지 않았고 약초는 약초상이 와서 가져갔다. 소, 약초가 그나마 돈이 되었다.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였다. 농사도 빚내서 지었다. 지금 사는 집은 30년 넘었다. 그전에는 흙집이었다. 흙집 부수고 그 자리에 지금 집을 지었다. 아이들은 대현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아이들 졸업사진은 있기는 있을텐데, 아이들이 가져갔을 수도 있다.</p> <p><마을이야기> 당산제 음식은 떡, 부침개, 나물과 뽕(밥) 짓는다. 별 것 안 한다. 과일 몇 가지 올리고. 내가 음식을 장만한 건, 20년쯤 되었다. 성심껏 조금하는 거다. 옥수수 술은 엿물술이라고도 한다. 이 지역(봉화지역)의 전통술이다. 옥수수가 많이 나니 만들어먹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술은 10일 안에 먹어야 한다. 그 이상 놔두면 맛이 변질된다. 엿물술은 1년을 놔둬도 괜찮다.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다. 공이 많이 든다. 옥수수를 말려서 갈아서 옥수수액을 내어 만든다. 햇옥수수로도 가능하다. 가마솥에 옥수수액을 내서 졸이는 과정이 오래될수록 보관이 용이하다. 옥수수를 갈아서 만들어서 일반 술처럼 삭혀서, 졸이는 거다. 많이 끓일수록 술이 오래간다. 남편 환갑 때 마지막으로 했다. 20년 전이다. 만드는데 힘들어서 지금은 안 한다. 요즘</p>

은 좋은 술도 많으니 구태여 할 필요도 없다. 옛물술은 옥수수 가루가 있으면 되니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옥수수로는 올챙이묵을 만들어 먹었다. 올챙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올챙이묵이라 했다. 방앗간에 가면 옥수수를 쌀 모양으로 만들어줬다. 옥수수를 맷돌에 갈아 밥으로 해먹었는데, 금천 방앗간에 가면 쌀 모양으로 만들어줘서 그것으로 밥을 해먹었다. 그때 다녔던 금천 방앗간은 없어진 것 같다.

<p>관련자료</p>	
<p>기타</p>	

구술채록카드 (태백산국립공원)

지역	경북-봉화-석포
마을	백천마을
번호	3

일시	2017년 4월 8일		
구술자	강창희	장소	강창희의 집
사진	허명구	정리	윤주옥
채록자	윤주옥	동행자	-

구술자 정보			
이름	강창희	출생년도	1963년생
직위	-	연락처	010-9339-5205

주요 구술내용
<p><생애사> 백천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많이 왔었고, 마을에 땅과 집이 있기 때문이다. 증조할머니 산소가 바로 앞에 있다. 증조할아버지가 여기서 농사짓고 생활하였다. 이 집의 소유자는 나다. 아버지 소유였는데 내가 맡이라 나에게 상속되었다. 나는 태백 금천에 살면서 산소에 다녔다. 고향은 춘양이고 외가가 금천이다. 태백 금천에서 1978년까지 살다가 다시 춘양으로 들어갔다. 어린 시절은 금천에서, 직장은 부산에서 다녔다. 종교는 불교다. 부산에 있는 절에 다닌다. 증조할머니 산소 가는 길에 현불사는 한 번씩 가봤다. 2016년 가을(11월), 백천으로 들어왔다. 직장생활하다 힘들어서 그만 두고 들어왔다. 가족들은 부산에 있다. 장기적으로 가족들도 여기로 들어올 생각이다. 이 집에 살던 사람은 서울로 갔다.</p> <p>11월에 들어와 측량하고 울봄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전에는 배추를 심었던 것 같다. 집을 다시 지으려고 건축대장을 확인해보니 1963년에 지은 걸로 기록되어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을 먹는다. 화장실은 푸세식이다. 정화조를 묻으면 그 물이 계곡으로 흘러가서 안 된다고 들었다. 씻는 것도 밖에서 한다. 부엌도 따로 없다. 밥은 방에서 하고, 설거지는 밖에서 한다. 밖에서 쓰는 물도 계곡으로 내려가긴 한다.</p> <p>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난방은 나무로 한다. 다른 집들은 연탄과 기름보일러를 냈지만 이집은 아직 아궁이다. 이집을 헐고 다시 짓는다면 씻는 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p> <p>생계는 사과 판매로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3~4년 후면 사과가 열린다고 한다. 사과밭은 1400~1500평 정도 된다. 사과나무는 동생들과 함께 심었다. 사과농사를 선택한 것은 배추는 생활이 힘들지만 사과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과는 예전에 키우는 걸 봤다. 약 치는 것도 배웠다.</p>

도로 옆에 붉은색 막대기, 그 안쪽이 우리 땅이다. 그 너머가 옛날 길. 개천 바로 옆에 길이 있었는데 큰물이 와서 다 쓸려 내려갔다. 개천 길이 없어지니 이쪽으로 길을 낸 것이다. 마을 길 사용에 대한 보상은 못 받았다.

밖에 나갈 때는 트럭타고 나간다. 트럭은 여기 들어오면서 장만했다. 아플 때는 태백-장성 병원으로 간다고 들었다. 약국도 태백으로, 봉화보다 태백이 더 가깝다. 생활필수품은 석포면에 농협이 있어, 대충 해결한다. 석포에 목욕탕은 없다. 작은 일은 석포에서, 큰일은 태백으로 나간다. 택배는 들어오긴 하지만 매일 들어오진 않는다. 이틀에 한번씩, 모았다가 보낸다.

컴퓨터는 없다. 컴퓨터도 사고, 인터넷 요금도 내야하니 아직은 여유가 없다. 사과라도 나와야 이런저런 여유가 생길 것 같다.

<국립공원>

나는 명품마을 지정된 후에 들어왔다. 명품마을에 기대하는 건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고 농작물 판로를 뚫어주는 거 등인데 국립공원에서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명품마을로 지정하면서 이 집을 투방집으로 해놨는데 그거 때문에 골치 아프다. 투방집이면 집채에 나무가 보여야하는데 시멘트 밖에 안 보이니 마을에 온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시멘트 안쪽은 나무와 흙이지만 썩어서 시멘트를 발랐다.

<p>관련자료</p>	
<p>기타</p>	

구술채록카드 (태백산국립공원)

지역	경북-봉화-석포
마을	백천마을
번호	4

일시	2017년 4월8일, 10월23일		
구술자	이석천	장소	이석천 집의 정자
사진	허명구	정리	윤주옥
채록자	윤주옥	동행자	-

구술자 정보			
이름	이석천	출생년도	1948년생
직위	명품마을위원장	연락처	010-3191-6609

주요 구술내용
<p><생애사> 백천마을은 50년 동안 사람하고 두절된 상태에서 살았다. 나는 60년대에 들어왔다. 강원도 삼척 살다가 여기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여기에 땅을 샀다. 아버지는 이북에서 월남했는데 이북사람들은 정감록을 믿는다. 아버지는 십승지를 찾아서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다녔다. 이북에 계신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데 큰아버지는 집을 지키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세월이 편해지면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전에 많은 돈을 가지고 남쪽으로 오셨다. 돈 냄새가 나니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 십승지라 하며 풍기, 영월, 부여, 전라도 등을 소개했고 아버지는 이들과 다니면서 땅을 샀다. 삼척에 살 때 먼 일가가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사라고 해서, 와서 보니 피난처도 되고, 이 정도가 있으면 난리가 나도 굶어죽지 않겠다 싶어 샀다고 들었다. 처음에 6천 평을 사고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나가면서 판 땅을 사서 지금은 2만평이 되었다. 지금 사는 땅에 전엔 5집이 살았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도 여기 살았는데 교육공무원이었다.</p> <p>내가 이곳으로 들어온 이유는 땅을 사놓은 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다. 농막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부탁하니 안 되었다. 군대 다녀오니 아버지께서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취직 될 때까지 여기 와서 지키라고 해 들어오게 되었다. 그때 들어와서 못나갔다. 혼자 들어왔다. 여기 들어와 중매로 만나 영주사람 아내와 결혼했다. 아내(권옥선, 1956년생)는 영주 사람이며 혼인은 1970년대 중반에 했다. 아이들은 7살이 되면서 부모님께서 삼척으로 데리고 갔다. 삼척에 아버지가 살고 계셨다. 아이들은 밖에서 학교에 다닌 후 여기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살았다. 아이들이 밖</p>

에서 커서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은 없다. 백천, 대현초등학교 관련 사진은 군청이나 면에 있을 수도 있다.

사과농사는 8년이 되었다. 전에는 소를 키웠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다른 사람들이 한두 마리 키우던 때 나는 40마리나 키웠다. 그런데 소 값이 떨어져서 빚을 많이 졌다. 88올림픽 때 소 값이 좀 올라 키우던 소를 다 팔았는데 그 후로 소 값이 내릴 적은 없었다. 그때 안 팔았으면 갑부가 되었을 것이다.

마을 위쪽의 화전하던 계곡, 올라가다 왼쪽 편 물웅덩이가 있는 곳에서 소를 키웠다. 소들은 여름에는 거기서 살았고, 가을이면 데리고 내려왔다. 그곳에서 소를 키울 때 소들이 자꾸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갔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소는 소금이 부족하면 탈출한다고 한다.

소를 판 후에는 고랭지 채소농사를 지었고 지금 하고 있는 사과농사는 봉화군 과수원 보조 사업에 참여하면서다. 과수원 보조사업에는 나 말고도 12가구가 참여했다. 사과작목반 회원들끼리 도와가며 일을 한다. 가지치기는 겨울에 한다. 올해는 겨울에 일을 못해 지금(4월 중순) 하고 있다. 사과농사는 1만평 정도 한다. 사과나무는 심은 지 3년 후부터 열매를 딸 수 있지만 7년이 지나야 이익이 난다. 작년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이장은 3년 동안 했다. 이장을 하기 전에도 단체 회장 등을 하면서 마을 일을 많이 했다. 마을에 사업을 끌어오는 일은 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수월했다. 이장 시작하던 해에 위암 수술을 했다. 위를 반이나 잘라냈다. 3년 마치고, 힘들어 젊은 사람에게 넘겼다.

이 집은 50년 정도 됐다. 집의 뼈대는 나무와 흙으로 초가삼간집이다. 이 집을 헐고 다시 지을 생각은 없다.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만 불편하다. 수도, 욕실 다 집안에 있다. 난방은 연탄으로 한다. 기름도 함께 쓴다.

요즘은 겨울에도 과수를 하니깐 바쁘다. 월동준비도 하고, 전지작업도 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할 일이 많다. 사과농사는 4계절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즙도 만들어 판매한다. 즙은 밖에서 해온다. 즙이 투명하고 맑다. 사과즙이 잘못되면 텁텁한데 그 이유는 사과가 병들고, 덜 숙성된 걸로 하면 그렇다. 이런 즙은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즙에 설탕 등 첨가물이 전혀 없다.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간다. 사과 즙 1박스(100개)에 택배비 포함하여 55천원 받는다. 제작은 봉화 나가면 즙내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판매는 하지만 장사 속으로는 안한다. 주로 아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사람들에게만 판매한다.

집 입구의 정자는 군에서 보조받아서 지었다. 2천만 원 보조받았고 3~4년 되었다. 백천 마을엔 뭘 지으려 해도 땅이 없다. 그래서 우리 땅을 내놓은 거다. 마을 들레길도 우리 과수원 뒤로 나온다. 오가는 사람들이 사과를 따먹을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나 따갈지 모르지만 그건 그냥 놔두려한다. 대신 원두막 지어서 사람들이 서리하면 '야 이놈들이 조금만 따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라 생각한다.

과수원 농사는 사람 사서 한다. 꽃 따는 거는 약품처리를 한다. 지지분하고 잘 안 될 거는 떨어뜨리고 좋은 건 남도록 한다. 꽃은 안 따도 된다. 알맹이가 생기면 알맹이를 떨어뜨리는 약이 있다. 그걸 뿌리면 2/3가 떨어진다. 사람이 할 일은 그걸 다시 한번 거리 맞춰서 따면 된다. 가을에 사과밭 콩쿠르 하고 싶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나무를 분양할 계획이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관리해주는 대신 10만원을 받을 생각이다. 꽃 딸 때, 열매 슈아줄 때, 그리고 수확할 때 오면 된다. 일반적으로 15만원 정도인데 10만원만 받을 계획이다. 만약 천재지변으로 사과 수확이 안 좋아도 한 상자는 무조건 보낼 계획이다.

<마을이야기>

60년대에도 마을 앞 도로가 있었다. 도로는 일제 때 소나무를 베어서 나가던 길이다. 베어진 나무는 목탄차에 실려 나갔다. 이 나무들은 임원항에서 배로 가지고 나갔다. 두세 아름되는 소나무(적송 춘양목)들이 베어나갔다. 이 도로는 언덕이 없다. 평지처럼 완만하다. 목탄차는 불을 때서 수증기로 가는 차라서 언덕이 있으면 힘이 없어서 못 간다. 이 길은 목탄차가 가기 좋은 길이다. 이곳은 계곡마다 길이 있다. 당시 소나무를 실어나르던 길이다. 해방 후에는 영주에서 철암을 잇는 영암선을 위한 철도 침목(참나무)을 여기서 해가지고 나갔다.

여기는 1962년 열목어 서식지로 지정되면서 외부와 단절되었다. 사람들이 계곡에 들어가지 않으니 계곡도 산도 보전되었다.

60년 중반, 내가 들어올 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다. 오히려 축소되었다. 예전에는 40가구나 살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전 70년대 말 화전민을 내보내는 정책을 폈다. 울진삼척공비침투사건 때문에 위험하다며 집을 지어주고 이주시켰다. 그곳이 대현 2리, 열목어 마을 있는 곳이다. 그때 지어진 집의 형태는 다 바꿨다. 옛 모습은 이북 방송에서 나오는 집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 때 다 나가고 남은 가구가 8가구다.

현불사는 들어온 지 30년 되었다. 김찬영 아버지가 토박이인데 돌아가셨다. 현불사 아래 다리쯤에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절에서 그 땅을 사면서 떠났다.

우리 집에 다리가 난 것은 30년 전이다. 다리 포장은 20년 전에 했다. 전기는 30년 전, 현불사가 들어오면서 마을에도 들어왔다. 대부분 차가 있으니 밖에 나갈 때 차를 타고 나간다. 차가 없는 노인회장은 4바퀴 전동차로 열목어 마을까지 나간다.

병원은 태백으로 간다. 태백까지 30분 걸린다. 영주, 안동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다. 장도 태백으로 간다. 대현이 경북과 강원도의 경계다. 도로로 나가면, 철길이 있다. 강릉에서 영주로 가는 철길인데 그 철길이 도경계다. 대현 사람들이 생활이 불편하여 행정구역을 태백으로 바꾸려 했지만 국회 통과, 대통령 선포 등 어려움이 많아 이뤄지지 않았다.

마을에서 태백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마을 끝에서 부쇠봉으로 가는 길이 있다. 부쇠봉에 오르면 천제단, 문수봉이 보인다. 강원도와 경북의 경계가 천제단에서 문수봉으로 가는 능선이다.

예전에 태백산에서 약초, 사냥을 많이 했다. 멧돼지도 잡았는데 산림법이 없던 시절이니 죄를 묻지 않았다. 호랑이에 대해서는 듣기는 했다. 지금 집 앞 마당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나도 그 집에서 살았다. 당시에도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다.

그 집의 구조가 특이했다. 미닫이 문 안쪽에 흙을 파서 판자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했다. 어르신들 말로는 문을 치고 호랑이가 들어올까 봐 그리 만들었다고 했다. 낮에는 밀어냈다가 밤에는 다시 끼워넣는 구조이다. 태백산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이야기다.

그 집 구조는 모든 걸 집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소도 집안에서 살았다. 방과 방 사이에 마루를 거실처럼 해놨는데, 거실에서 타작 등의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었다. 집 안에서 사람과 소가 함께 사는 구조였다.

밤에는 꼬불이라 하여 코끼리 빨처럼 생긴 것을 모서리에 났다. 페치카 같은 거였다. 아래에 돌로 된 판을 놓고 아궁이처럼 만들어, 연기는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꼬불은 난로 목적이 아니라 송진 같은 것을 채취해서 불을 밝혀 호랑이를 피하려는 거였다.

옛 어른들 말에 호랑이는 그들만 지면 온다고 했다. 깜깜해야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들 따라 내려온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하다 그들이 지면 밖에 있는 소도 집안에 몰아넣고 모든 일을 집 안에서 했다. 다른 집들은 그런 구조였으리라 생각한다. 그 집은 비가 새서 부수고 다시 지었다. 아쉬움이 있다. 복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집으로 못이 없던 시절이니 나무로 뼈기를 만들어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했다. 문 두께가 엄청 두꺼웠다.

마당에 있던 집의 형태가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100여 년 전에는 다들 그런 집에 살지 않았을까 싶다. 세월이 흘러 헐어버렸다. 우리집 말고 다른 집은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2중, 3중 겹집은 우리집밖에 없었다. 그 집은 대패가 없이 도끼로 쪼아서 만든 집이다.

마을 입구의 투방집은 역사가 얼마 안 된다. 영암선 철도 만들 때 인부들이 들어와서 기거하면서 밥해먹던 집이다. 건축대장에서 1963년에 지어진 집으로 되어 있으나 그보다는 더 된 걸로 알고 있다. 일제시대 후 바로 지었다고 들었다.

이곳은 해발이 높아 논농사는 못한다. 쌀은 사서 먹었다. 쌀이 귀했다. 60년에는 숲 공장, 큰 나무 베어서 함지박 만들어서 팔고, 화전 일구어 먹는 건 해결했다.

대현에 버스가 들어온 건, 40년쯤 되었다. 대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빨리 들어온 편이다. 내가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버스가 하루 3번 다녔다. 태백으로 나가는 버스였다. 포장도로가 생기면서 경북여객이 들어왔다. 봉화와 태백을 오가는 버스는 30년쯤 되었다. 태백에는 경북사람들이 많이 산다.

버스가 일찍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는 대현초등학교 근처에 아연생산광산(연화광업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업원이 700명이나 됐고, 사택에서 살았다. 광업소가 있던 뒷산이 연화산이다. 연화광업소는 일제 때 개발됐고, 일제 후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방산업체여서 연화광업소에서 일하면 군대에 안가고, 면제해 줬다. 80년 초반까지, 20년 동안 경기가 좋았다. 일꾼들에게 쌀을 배급해줬다.

먹는 물은 계곡에서 끌어먹는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먹는다. 백천마을은 오폐수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 수세식 화장실 생기면 정화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아직까지는 재래식 화장실을 고집하는데 아이들이 안 오려한다. 아이들이 오면 화장실 때문에 차 태워서 현불사까지 나간다.

백천에서 장성 5일장에 가는 길은, 오미재 넘고, 금천재를 넘어서 장을 보러 다녔다. 대현 앞 도로가 활성화되기 전, 버스가 다니기 전, 30년 전에는 장을 보러 장성으로 다녔다. 태백 장성이 생활권이었다. 행정구역은 경북 봉화이지만 태백 장성시장을 이용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고, 차가 있으니 주로 태백에서 장을 보고, 또 춘양에 5일장이 서니 춘양장으로도 많이 간다.

여기 지명에 대한 유래는 잘 모른다. 화전민이 살던 곳이니, 살다가 나가니 유래에 대해 알기가 힘들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냥 사용한다. 화전촌의 특성이기도 하다. 머리골, 상골, 칠반메기골 등 골골마다 10여 가구 이상이 살면서 화전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났는데, 그곳이 직선거리로 100km 남짓이다.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의 화전민들은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집을 지어주고, 산에서 내려오게 했

다. 여기 살던 사람들은 대현에 자리 잡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멀리 떠났다. 여기에 소유한 땅이 없으니 여기에 다시 올 일도 없어 왕래가 끊겼다.

<국립공원>

국립공원이 되면서 사과를 북한산성, 도봉산, 정릉 장터에서 팔 수 있었다. 작년에 두 번, 올 해 한 번 모두 3번 올라갔다. 잘 팔린다. 소비자는 맛이 있어야 산다. 청송사과를 으뜸으로 치는데 거기는 해발 300~400m여서 맛과 강도에서 여기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는 고랭지여서 표면이 거칠고, 크기가 작지만 단단하고,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택배주문도 많이 들어온다. 명품마을도 되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소비자가 보고 주문할 것이다. 마을 둘레길도 만들고 있다. 다른 명품마을을 가보니 너무 상업적이었다. 백천은 내가 위원장이고 우리의 앞으로 계획은 돈 버는데 치중하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집을 짓고 펜션하는 것은 안할 예정이다. 선전을 하기보다는 와서 보고, 경험해보면 사람들간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사과따기 등 틀에 박힌 체험보다는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 꽃은 5월 중순, 사과 따는 건 10월 말부터 한다.

명품마을 지정 후 올해 첫해다.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둘레길을 만드는 중이다. 올해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민박 등 주민소득사업을 계획 중이다. 명품마을사업은 4~5년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명품마을로 인한 이익은 아직 못 느끼고 있다. 둘레길 만드는 게 연말에 완성되니 그 후는 뭐가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다.

백천계곡을 병오천이라고도 부른다는데 우리는 병오라는 이름이 생소하다. 태백산국립공원 병오분소라고 쓰고 있는데 백천분소라고 해야 한다. 올해 우리는 국립공원사무소에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태백시민들이 워낙 요구가 많은데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다. 명품마을 되면 다음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지정하면서도 마을에서 요구한 것은 등산로 개소, 공원마을지구와 명품마을 지정, 휴게소를 하나 짓기 등을 요구했다. 휴게소는 탐방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마을에서 생산한 나물 같은 것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일반 차가 마을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한다. 열목어 마을에 주차시설을 만들고 모든 차량은 그곳에 주차하고 전기차를 이용해서 탐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운영해보고, 1일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여 합의하면 된다. 탐방하는 사람들의 개인 면적을 확보하여 사람들로 인해 피곤하지 않았으면 한다. 수치상으로 따져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을 제한하는, 예약제를 하는 거다. 환경부장관과 봉화군수가 합의해서 사인도 했다.

열목어 때문에 60년 동안 보전된 것을 앞으로도 잘 보전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오고, 민박 짓고 하면 우리 생활은 나아지겠지만 우리 후손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구 온난화에, 미세먼지에 이제 밖에 나가기도 힘든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 이곳은 사람들을 품어줄 것이다.

이곳이 지금처럼 보전만 잘 되면 사람들이 숨 쉬는 거 걱정 안하고, 트레킹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돈 벌려면 도시로 나가야지 이곳에 살면 안 된다. 섬 명품마을에 가봤는데 도떼기 시장이고, 다들 장사속이다. 주민들끼리도 싸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민박하고, 오는 손님들이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가 많지

<p>않아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도 없다. 대부분 산림청 땅이다. 개발 가능성이 많지 않다. 위원장으로서 일이 많지만 욕심을 부르면 힘든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힘든 줄 모른다. 잔재주, 꿈수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하다.</p>	
<p>관련자료</p>	
<p>기타</p>	

구술채록카드 (태백산국립공원)

지역	경북-봉화-석포
마을	백천마을
번호	5

일시	2017년 2월 12일, 4월 8일, 10월 23일		
구술자	김찬영	장소	김찬영의 집
사진	허명구	정리	윤주옥
채록자	윤주옥	동행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구술자 정보			
이름	김찬영	출생년도	1971년생
직위	-	연락처	010-7160-2467

주요 구술내용
<p><생애사> 우리 집안은 피난민으로, 할아버지가 양구에서 내려와 자리 잡았다. 나는 1971년생이고, 형제는 5명(남 2명, 여 3명)이다. 부모님께서 여기서 농사지어서 기르셨다. 고등학교까지 마을에서 다녔고, 고등학교 후에 밖에 나가 살다가 2015년에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 대현초등학교, 석포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태백에서 다녔다. 마을에 살면서 태백까지 다녔다. 대현까지 걸어 나가면 태백 나가는 버스가 많았다. 어릴 때 살던 집이 바위 앞에 있어 우리집을 방구집이라 불렀다. 내가 밖에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기 사셨다. 아버지는 2014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11년전에 돌아가셨다. 집 앞 사과밭은 내가 짓는 거다. 산에 다니면서 약초, 버섯, 꿀 등을 한다. 토종꿀은 산에 갔다 놓으면 벌들이 들어오는데 벌들이 많이 죽어 요즘은 잘 안 들어온다. 꿀은 봄에 놓았다가 여름에 가져온다. 요즘은 도둑이 많아 5월이 되면 벌을 집으로 가져온다. 꿀은 6월~7월에 생산된다. 양봉과 비슷한 습성이 있지만 양봉보다 토종벌이 더 부지런하다. 등치는 적지만 더 열심히 일한다. 꿀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한다. 조선 사람들과 비슷한 습성이 있다. 마을로 다시 들어온 이유는 몸이 안 좋아서다. 몸이 좋았다면 안 들어왔다. 여기 들어와서 몸은 많이 좋아졌다. 가족들은 영주에 있다. 아내와 딸 둘(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20대 중반에 결혼했다. 마을을 나가 부산, 서울 등지에서 살았다. 사과는 작년에 심었다. 버섯, 약초, 꿀로는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건 벅차다. 집사람도 일을 한다. 여기에 계속 살 생각이다. 아내도 들어올 것이다. 정자는 작년에 지었다. 정자 짓는데 쓰인 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을 때 쌓아뒀던 거다. 동생들이 들어와서 함께 지었다.</p>

나는 이곳이 좋다. 사람들에게 어릴 때 좋은 곳에서 살았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입금지구역이었다. 열목어마을로 지정은 됐어도 계곡에서 텐트치고, 취사했다.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다. 단속을 심하게 한 건 얼마 안됐다. 그게 아니면 완전 개발되었을 것 같다. 그랬다면 나도 여기 살고 있지 않을 거 같다.

내 땅은 1500평이다. 농사지어서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산에 올라간다. 산은 나만 부지런하면 살 수 있다. 태백산엔 약초가 많지 않다. 소백산은 삼이 있는데 여기는 삼도 없다. 버섯도 숲이 뿔뿔해서 많지 않다. 아버지 따라 산에도 다녔다.

한봉은 4월 중순에 설치한다. 백천계곡으로 올라가다가 보이는 곳에도 있다. 한봉은 11월 상강 무렵에 탄다. 오늘, 12시에 따려고 했으나 벌이 덜 빠져서 시간을 늦춘 거다. 소쿠리에 담아서 따뜻한 곳에 놔두면 꿀이 내려온다. 꿀이 숙성되면 수분이 15% 정도 나온다. 이 상태에서 내려 먹는다. 더 이상 숙성시킬 필요는 없다. 가공은 안 한다. 한봉 꿀은 수분이 거의 없고, 끈적끈적 하다. 벌들은 지금, 다른 통에 있다.

토종벌도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배웠다. 토종벌로는 1년에 30대 정도 하는데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 많이 안 팔렸다. 토종꿀은 가격이 없다. 35만원~50만원 정도 한다. 벌꿀은 그 해에 안 팔려도 놔둘 수 있다. 아는 지인들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토종벌꿀은 귀하지만 1년에 10명씩 먹는 사람들도 있다. 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복용하면 감기에 도 안 걸린다. 나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감기에 한번도 안 걸렸다. 생꿀로 퍼서 먹는다. 들어오기 전에는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여기 들어와서는 안 걸렸다.

올해는 예전보다 더 못하다.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다. 올해는 한말도 안 된다. 한말은 10되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안 좋다. 예전에는 2리터짜리 70병, 7말 정도를 땀다. 꿀 값은 그때그때 다르다. 한봉은 화분 채취는 못한다. 양봉은 인위적으로 화분을 준다. 한봉은 벌통마다 맛이 다르다.

꿀을 딸 때, 특별한 행사는 처음 탄 꿀을 따서 빈그릇에 담아 산신께 올린다. 감사인사를 하는 거다. 한봉을 자리에 놓을 때는 안 한다. 꿀이 안 들어있는 건 밀랍을 만든다. 밀랍은 다음 해에 벌통에 칠한다.

<마을이야기>

부쇠봉 가는 길은 있지만 상골은 길 자체가 없다. 예전에는 상골 쪽에서 나물을 많이 했다. 상골 쪽에 숯공장이었다. 도투마리골, 칠발메기골 등이 있다.

지도에 병오천이란 기록이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백천계곡이라 부른다. 이장님 말씀으로 병오는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서있는 모습, 현불사 맞은 편에 있는 바위들이 병사들이 서있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970년에는 가구 수가 지금보다 많았다. 동갑내기가 7명이나 됐다. 많은 사람들이 나간 것은 차츰차츰 먹고살기 힘들니까 나간 것 같다. 화전이 끝날 때 나가고, 현불사 절 지으면서 다들 밖으로 나갔다. 숯 공장은 얘기만 들었다. 10살 때 가 봐도 숯 공장, 화전민은 없었다.

우리 마을은 가구 수가 많지도 않지만 함께 뭘 하지도 않는다. 연배 차가 많기 때문이다. 당집에서 제를 지낸 후 나무에서 제를 지낸다. 음력 대보름 전날(음력 1. 14일), 손 없는 날엔 일찍, 손 있는 날엔 자정쯤에 지낸다. 산신제라고 봐야 한다. 산에서 벌어먹고 사니 산신령을 모시는 거다. 오래 전부터 지냈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어릴 때는 어르신들이 6~7명이 참여했다. 지금은 노인회장님과 나만 참여했다. 다른 분들은 여러 이유로 참석을 안 한다. 이장님은 절에 다닌다고, 새로 들어온 분은 내년부터 참여해 보겠다고, 나무다리집도 들어온 지 얼마 안됐다.

아연광업소가 있어 대현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많았다. 광업소 문 닫으며 다 빠져나갔다. 그 당시는 대현에 대현 80가구나 되었다. 대현은 농사짓고 과수원해서 먹고 산다.

이곳은 교통은 편하다. 차가 없어도 1시간만 나가면 버스를 탈 수 있다. 밖에 나갈 때는 차로 다닌다. 생활필수품은 영주에서 산다. 병원도 영주로 간다. 태백은 물가가 비싸다. 태백이 생활권이긴 하다.

물은 계곡, 골짜기에 있는 물을 먹는다. 마을 상수도도 없고 집집마다 각자 알아서 먹는다. 노인회장님 집 옆에 있는 건물은 안동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관측기다.

맨 윗집은 현불사 스님 집이다. 공양할 때만 절로 내려가신다. 초과일 전후에는 절에 내려가 계신다. 내가 초등학교 때 현불사 법당을 지은 것으로 기억된다.

백천계곡과 관련해서 마을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외지에서 온 분들은 화장실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민박은 여건만 되면 하려한다. 화장실 때문에 민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부쇠봉은 강원도와 경북 경계지점이다. 선바위, 음지선바위, 양지선바위 등이 있고, 통시(화장실의 옛이름=병사들이 불일 보는 곳)도 있다. 아연광산에 다녔던 분들은 대현에 살았다. 여기에는 살지 않았다.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편해졌다. 집 비울 때 개, 닭 등을 공단 직원들이 돌봐 준다.

<p>관련자료</p>	
<p>기타</p>	

구술채록카드 (태백산국립공원)

지역	경북-봉화-석포
마을	백천마을
번호	6

일시	2017년 4월 9일		
구술자	정호 스님	장소	현불사 공양간
사진	허명구	정리	윤주옥
채록자	윤주옥	동행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구술자 정보			
이름	정호	출생년도	1956년생
직위	현불사 스님	연락처	-

주요 구술내용
<p><생애사> 현불사가 주소까지 이곳으로 이전한 건 1987년도다. 나는 1980년도부터 큰스님과 함께 있었다. 내 고향은 경북 군위이다. 현동에 이모가 계셨고, 태백에는 외삼촌이 살았다. 외삼촌이 놀음으로 재산 날리고 태백에서 광산사업을 했다. 그런 이유로 어릴 때부터 태백을 왔다 갔다 했다.</p> <p><현불사> 백천마을은 1987년에도 현재와 비슷한 모습이였다. 울진삼척간첩사건으로 윗마을이 소개되어, 통제초소 안쪽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마을 끝에 있는 현불사 관련 집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절 소유다. 신도가 공양한 거다. 1980년도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시기였는데 경찰하던 분이 현불사에서 3년 기도해서 먹고 살 방편이 생겼고 그 후 골동품 미술품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큰스님 집에 동기와의 었어 주고, 절 주변의 농토를 사서 절에 기부했다.</p> <p>현불사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는 큰스님이 법조계에 계시다가 구속되어 재판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때 삶이 허무하게 느껴져 죽으려고 설악으로 들어갔다. 죽으려고 굶고 앉아 있다가 동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p> <p>큰스님께서 법화경을 3번 봤는데, 한번은 글자로 보고, 다음은 내용으로 보고, 세 번째는 세상의 이치를 봤다고 한다. 법화경을 통달하신 거다. 그리고 법화경을 펼치려 세상에 나오셨다.</p> <p>깨달음을 얻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생 술잎을 먹으려하니 키 작은 어르신(무형조사?)이 와서 '야 이놈아 술잎을 그냥 먹으면 되니, 흠하고 섞어 먹어야지.'하며 야단을 치셨다.</p>

‘상생상극도 모르는 놈이 무슨 도냐?’그러셨다고 한다. 솔잎은 그냥 먹으면 변비가 생기니 익혀서 다른 것과 섞어 먹어야 한다는 거였다.

무형조사 밑에서 여러 경험 후에 어느 절을 좀 봐달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머슴처럼 일하며 법을 펴기 시작했다. 법이 알려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니 좁아서 이리로 옮겼다. 이 자리를 보고 단군할아버지가 점지한 자리라 하셨다.

열목어가 있으니 광산권을 못하게 되었으니 열목어 덕분에 이 계곡이 살아난 거다. 덕도 보지만 실도 많다. 현불사도 뭔가 하려면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집을 짓고 싶어도, 화장실을 지으려 해도 안 된다. 백천계곡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마을도 변화한 게 하나도 없다. 사중씨 집은 주택 허가를 받아 약간 개조했다.

백천은 4계절이 다 아름답다. 겨울엔 눈, 여름엔 자연 그 자체다. 여름에 백천계곡으로 들어가면 정말 좋다. 여름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통제소 앞 절 집에는 스님 한 분이 항상 거주한다. 공양하러만 내려온다.

<열목어>

1985년도에 법당 짓고 연못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열목어를 키웠다. 당시 계곡에는 열목어가 거의 없었다. 총무였던 강정섭(?·돌아가심)님이 흥천 내면에서 열목어를 가져와서 키우기 시작했다. 봉화군 자원개발계에서 함께 했다. 지금의 농업기술센터다. 봉화에 있던 양어장 주인 홍주선님의 기술자원을 받고, 내면에 있던 강원도민물고기센터도 가보고 했다. 기술이나 자료도 없던 시기였다. 부화하면 다 실패했다. 송어가 인기 있다가 없어지던 시대였다. 송어, 산천어, 열목어, 쉬리 모두 같은 과다.

1990년도부터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 1993년도에 부화에 성공했다. 부화한 열목어는 1995년부터 방류했다. 방류행사에 경상북도 도지사도 참여했다. 백천계곡, 반야계곡, ##(또 하나의 계곡이름) 등 3곳에 방류했는데 예전에 열목어 살던 곳이었다. 반야계곡에서의 복원은 성공하지 못했다.

백천계곡은 태백사람들이 와서 놀고, 먹는 곳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어도 텐트치고 등 놀이문화가 여전했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산가리를 뿌려서 고기를 잡아먹었다.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특별한 통제가 없으니 그랬던 것 같다. 장성쪽에서 넘어와 고기 잡고 놀고 그랬다.

큰스님께서 백천계곡 안에는 광산이 많고 광권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열목어가 있으니 광산개발을 못한다고 하셨다. 천연기념물이라서, 열목어를 보호하면 환경이 살아나는 계기가 된다고 하셨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열목어가 사는 것, 마을사람들은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반반인 거 같다. 사람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접근 안 하는 게 제일 보호하는 방법일 것이다. 모든 것에 애정을 갖고 간절해지면 그 속이 보인다.

부화 후 먹이 부침하는 시기인 일주일에서 10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여전히 초기이다. 대량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열목어의 특성 때문이다. 성어가 되는 게 몇 %인가가 중요한데 많이 죽는다.

부화 후 10일까지는 자갈 속에 있으면서 물에 뜰 때까지 담낭에 있는 먹이를 먹게 되는데 그 후 담당이 사라진다. 열목어는 미생물 플랑크톤을 먹이로 한다. 알테미아(?)를 소금물에 타서 먹이로 준다.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자연에서는 스스로 해야 한다. 자연은 먹이가 충분하지만 5% 정도만 산다.

백천마을 주민들은 열목어가 많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적정수준이다. 열목어는 어디서든

잡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2급 보호종이다. 열목어들은 황지천에서도 볼 수 있다. 큰 물이 지면 보인다. 구문소 입구에서는 봤다. 열목어는 많아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열목어를 먹으려고 수달이 생기면서 열목어 개체 수는 유지된다.

열목어는 회유성 고기로 정체된 곳에서 움직인다. 육지에 도착된 어종이다. 열목어 큰 것은 60cm 정도 된다. 구문소에서는 70cm 되는 것도 있었다. 요즘 보이는 것은 50~60cm 정도이다. 손바닥 크기인 것은 2~3년쯤 된 것이다. 성어가 되었다는 것은 50cm 이상이라고 봐야한다. 3~4년이 지나면 50cm 정도 된다. 산란은 3년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 지금 연못에 있는 것들은 계곡에서 잡아넣은 것이다. 열목어는 육식성이라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다. 겨울에는 열목어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먹이감이 된다. 열목어를 찍기는 쉽지 않다. 열목어는 수중촬영을 해야 할 것이다. 두타연 등에서는 모였다가 여울을 치고 올라가니 많아 보이는 거다. 여기는 좀 다르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기 쉬운 곳은 다리 아래, 절 옆 관찰대 정도다.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관련자료	
기타	

구술채록카드 (태백산국립공원)

지역	경북-봉화-석포
마을	백천마을
번호	7

일시	2017년 4월 9일		
구술자	유창일	장소	현불사 공양간
사진	허명구	정리	윤주옥
채록자	윤주옥	동행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구술자 정보			
이름	유창일	출생년도	1961년생
직위	-	연락처	010-8795-5119

주요 구술내용
<p><생애사></p> <p>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3살 때 마을로 들어왔다. 백천에 외삼촌이 살고 계셨다. 외삼촌이 여기로 들어온 이유는 모른다. 외삼촌으로부터 마을에 대해 들은 건 생각나지 않는다.</p> <p>1982년 마을을 떠났다. 독가촌을 철거한다는 국가 정책 때문이다. 우리집이 가장 늦게 나왔고 다들 그전에 떠났다.</p> <p>우리집은 차단기 있는 곳에서 다리 두 개 있는 곳, 거기가 집터였다. 땅은 우리땅은 아니었다. 5남매였는데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생계를 이어갔다. 겨우 먹고 살았다. 공부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감자, 옥수수 농사지었다.</p> <p>우리집은 솥은 안했다. 솥공장에서 그을음 받아서 떡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 양봉하는 사람들은 전라도, 공주 등에서 여기까지 벌통 실고 왔다. 지금은 안 온다. 못 들어가게 하니 안오는 거다.</p> <p>아버지는 농사짓고, 형제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살았다. 초등학교는 대현초. 중학교는 석포로 나갔다. 동생이 1965년생인데 석포중 1회 졸업생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700명 정도였다. 광업소 때문이었다. 광업소 문 닫으니 사람들이 떠났다.</p> <p><마을이야기></p> <p>백천마을은 상백, 하백 이렇게 불렸다. 백천마을에 가구가 가장 많을 때는 78가구나 살았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마을에 사람이 많았는데, 1970년대 초반에는 48가구쯤 되었다. 내가 있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백에 13집, 하백에 17집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의 일이다.</p>

<p>이장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1980년대 상백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백은 그 후에 정착했다고 보여진다. 위험하다 해서 상백만 소개했다. 어릴 때 예비군들이 집에서 지켰고 군인들이 많이 와있었다.</p> <p>현재는 6가구가 산다. 마을 모습은 지금과 예전이 크게 달라진 것 없다. 병오동은 현불사 뒤쪽이다. 오동나무가 큰 게 있어서 벽오동이라 불리다가 병오로 불리게 됐다.</p> <p>소개되어 나올 때 울력하는 식이다. 대현에 예전 독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없다. 원하는 대지에 세를 주면 집을 짓도록 했다. 토지 주인에게 월세를 줬다. 돈이 있으면 좀 좋게 짓고 돈이 없으면 정부에서 나온 그대로 지었다. 살던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p> <p>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상백, 하백에 살았던 분은 노인회장님 말고는 없다. 방구집, 김찬영네 집에 큰 바위가 있어 방구집이라 불렀다. 이곳에서는 바위를 방구라 한다.</p>	
관련자료	
기타	

구술채록카드 (태백산국립공원)

지역	경북-봉화-석포
마을	백천마을
번호	8

일시	2017년 8월 18일		
구술자	무궁스님	장소	무궁스님 집
사진	허명구	정리	윤주옥
채록자	윤주옥	동행자	-

구술자 정보			
이름	무궁	출생년도	1948년생
직위	-	연락처	054-672-5055

주요 구술내용	
<p><생애사> 1948년에 태어났다. 충남 공주가 고향이다.</p> <p><마을이야기> 이곳은 현불사 소유 집이다. 내 집은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수행하며 공양하러 현불사에 왔다갔다 한다.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백천마을로 들어온 건 현불사가 지어진 후니 1980년대 후반이다. 백천의 백은 중용가 같은 것이다. 평평하고, 고르고,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다. 불편한 것은 없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p>	
관련자료	
기타	

구술채록카드 (태백산국립공원)

지역	경북-봉화-석포
마을	백천마을
번호	9

일시	2017년 10월 23일		
구술자	김경란	장소	김경란의 백천마을 집
사진	허명구	정리	윤주옥
채록자	윤주옥	동행자	-

구술자 정보			
이름	김경란	출생년도	1948년생
직위	-	연락처	010-56588-7215

주요 구술내용
<p><생애사> 남편과는 5년 차이이다. 딸 5명, 아들 1명이다. 맏이가 아들인데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계속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집에서 딸 2명을 낳았다. 아들 석포중학교, 딸아이 대현초등학교 다니다 떠났다. 아이들 중고등학교 교육 시키려니 태백으로 가게 됐다. 아이들은 속초(속초의료원 간호사), 포항(금은방), 전라도, 용인, 안산(아들) 등에 살며 다들 밥은 먹고 산다.</p> <p>우리는 42년 전에 여기로 들어왔다. 42년 전 이곳으로 들어온 계기는 남편이 광산에 다니다가 서독에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사기를 당하여 술만 마시고 하니까 시어른께서 여기로 들어가 살아보라고 했다.</p> <p>남편은 군대 다닐 때 월남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어서 서독에 가려했다. 그때 돈으로 250만원을 사기 당했다. 젊어서도 술은 안마셨는데 사기를 당한 후에 술도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일은 안하고 난폭이 지니, 시어른이 여기를 사줬다고, 여기에 들어가서 3년만 살아봐라 해서 들어오게 되었다.</p> <p>태백에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10년쯤 살면서 약초 등 농사지었다. 여기서 돈 되는 게 없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태백 탄광으로 가서 일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중,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니까 돈이 필요했다. 아이들 공부 끝나고 다시 여기로 들어왔다.</p> <p>여기 살다가, 태백 너머 살다가, 안산 살다가, 다시 여기로 들어왔다. 지금은 태백 칠암에 살고 있다. 칠암으로 나간 이유는 집 앞의 나무다리가 태풍 루사 때 떠내려갔는데, 그때 나는 아파서 수원 아주대병원에 있었고 여기에 남편이 혼자 있으니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당장 마을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가게 되었다.</p> <p>여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관리가 안 되어 지금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며 관리하고</p>

있다. 여기 살던 사람이 나간 후에는 아침에 와서 3~4시간 정도 일하고 다시 철암 집으로 간다. 이 집의 난방은 기름이다.

생활은 자식들이 일부 용돈 주고,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등으로 한다. 나도 노인들 돌보며 돈을 벌고 있다. 요즘 세상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살 수 있다. 아이들 키우며 사느라 안하는 일없이 다 하며 살았다.

여기 와서는, 청소하고 텃밭 관리 등을 한다. 풀 메고, 다시 들어와서 살 일은 없지만 팔 생각은 없다. 아이들은 여기를 좋아한다. 여름이면 다들 여기서 모인다. 부엌 살림살이, 세탁기 등이 다 있다.

우리집은 민박을 할 수도 있다. 누가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다. 화장실도 수세식이다. 이불도 있고, 당장도 사용 가능하다. 방은 2개와 주방, 화장실이 모두 집안에 있다.

사무실이라 되어있는 컨테이너는 비가 새서 집을 못 쓰게 되었을 때 안산에 있는 아들이 사무실로 쓰던 것이 필요 없게 되자 여기가 갔다 왔다. 안산에서 여기까지 70만원이나 주고 왔다. 차가 들어올 다리가 없었을 때라 60만원이나 주고 포크레인이 날랐다. 컨테이너는 따뜻해서 살아도 된다. 지금도 사용한다.

<마을이야기>

옷물은 옛날부터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집엔 노인회장님이 살았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이 예전부터 명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와서 이 물을 바르며 병을 고치고 간 후 명기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 물은 확실히 피부에는 좋다. 아이들 키울 때도 몸에 부스럼이나 땀띠 났을 때 물을 손수건으로 적셔서 닦아주면 금방 좋아졌다. 저 아래 모리가든, 그 집 신랑도 옷이 울랐을 때, 여기 와서 씻고 나왔다. 내가 집에 없을 때였는데 아이들이 모리가든 아저씨가 과자를 갖다 왔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 옷물로 씻고 나와서 고마워 놓고 갔다고 했다.

장성에 사는 어떤 분도 아들이 몸에 뭐가 나서, 이 물로 씻어주니까 좋아져서, 아들이 30살이나 됐는데 부스럼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물로 몸을 씻고 좋아져서 그 후에 다시 와서 물을 사갔다. 다른 사람들도 이 물로 효험을 본 후에는 과자나 돈을 놓고 갔다. 그래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옷을 탄 사람에게 잘 듣는다고 해서 옷물이라고 하는 것 같다. 옷물 때문에 우리 집을 옷물둔치집이라고도 한다.

우리 집엔 디딜방아가 있다.

내가 여기 와서 살면 옛물술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 여기서 살기가 힘들다. 남편이 시각장애인이다. 나도 몸이 안 좋으니,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야하는데 남편이 앞을 못 보니 가까이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심장판막증까지 와서 병원 가까이 있어야 한다. 남편은 녹내장으로 실명하게 됐다. 30년 가까이 진전되다가 실명했다.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지면서, 실명하게 된다.

여기서 살기는 어렵고, 그래도 여기가 좋아 왔다갔다 다닌다. 옛물술 만드는 거는 시어머니께 배웠다. 시어머니는 평천 분이셨다. 옛물술은 시어머니 따라서 함께 했다. 여기 들어와서도 했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은 태백에서 아는 사람이 남편 환갑에 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해주고 안산으로 갔다. 그랬더니 술이 잘됐다고 안산에 있는데 전화가 왔다. 15년 전 일이다. 2000년 초반이다.

옥수수 술은 옥수수를 물에 담가 불려서 축을 내야한다. 싹을 띄우는 거다. 싹이 트면 말려서, 술을 할 때 멧돌에 갈아서 물을 넣고 끓인다. 옥수수 물이 끓으면 옛기름도 놓

고 같이 끓인 후 물을 짜서 조린다. 엿 하는 식으로 한다 해서 엿물술이라 한다. 조린 후 식혀서 물을 따라 놓고, 밥과 누룩을 해서 자루에 넣어서 단지에 달아놓는다. 그러면 위에 물이 노랗게 맑게 나온다. 그냥 술은 4~5일 만에 되지만 엿물술은 10일 이상 걸린다. 진짜 맛있다.

남편 생일이 동짓달인데 술을 해볼까했더니 남편이 술을 안 좋아하니 하지 말라고 한다. 아이들은 해보라고 한다. 술은 독하지는 않는다. 계속 먹게 된다. 그래서 취한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독하다.

마을은 많이 달라졌다. 예전엔 길도 없었다. 비오는 날에는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갔다. 학교 갔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학교에서 너희들은 빨리 집에 가라고 보내줬다.

그때는 집이 많았다. 사람도 많이 살았다. 지금은 다들 나갔다. 그때는 도로도 없고, 형편없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그림다

장은 춘양으로 다녔다. 대현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춘양으로 나갔다. 연화광업소 있을 때는 대현이 컸었다. 아파트도 있었고. 빈 아파트는 다 팔렸다. 대순진리교가 평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아파트하고, 다리 건너 사택들을 다 샀다고 들었다. 지금은 사람이 들어와 살지는 않는다. 그 사람들이 사기 전에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산다.

<국립공원>

우리집으로 들어오는 다리가 예전엔 정말 예뻐는데 지금은 안 예쁘다. 인터넷으로 백천골을 쳤더니 우리 나무다리가 나왔다고 아이가 전화를 했었다. 예전에는 다들 사진 찍고 그랬다.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예전 다리 위에다가 다시 다리를 놓고, 넘어지지 말라고, 안전하게 한다고 와이어 줄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예전보다 예쁘지 않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니 좀 나올 것 같다. 사람들도 더 올 것이다. 주위가 깨끗해지고 더 잘됐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여름,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여기 계곡에는 못 들어가게 하니, 저 아래서 놀다가 여기가 더 시원하니 걸으러 온다. 겨울에는 설경 보러 온다.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도 너무 좋다. 우리집에서 보면 저 너머에 소나무에 눈이 올라왔은 게 너무 좋다.

<p>관련자료</p>	
<p>기타</p>	